

Cartier



CLÉ DE CARTIER
New Collection

까르띠에 1566-7277

cartier.co.kr

Style

조선일보

FALL 2016



ART +
CULTURE



CHANEL

FINE JEWELRY



SIGNATURE DE CHANEL

NECKLACE AND BRACELET IN WHITE GOLD, SAPPHIRES AND DIAMONDS
RING IN WHITE GOLD AND DIAMONDS

Starring

DOMINIC
WEST

LILY
JAMES

SIENNA
MILLER

DOMHNALL
GLEESON

as
THOMAS
BURBERRY

BURBERRY

London, England

DISCOVER THE TALE
OF THOMAS BURBERRY





42



52



50

Style **조선일보**

루치아노 베네통은 두루 보이는 검은 바림의 전사들 소년들은 이탈리아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토비아 스카르피의 작품으로 아미고 문디의 한국 컬렉션(South Korea Collection)을 담고 있다. 이 스텝에 담긴 각각의 캔버스 규격은 10x12cm로 우편엽서 정도 크기다. 2백5십점의 작품을 담은 한국 컬렉션은 2013년, 2015년 베니스에서 대중 앞에 선보인 적이 있고, 아작파는 아시아 지역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다.

ART+ CULTURE

사진: 마르코 파벤(Marco Paveni) © Fabrica

표지에 등장한 인물은 이탈리아 북부 트라비소에서 (스타일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루치아노 베네통(Luciano Benetton). 패션 그룹 베네통 창업자인 그는 은퇴 후 세계 곳곳에 있는 동시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우편엽서 크기의 작은 캔버스를 활용한 비영리 현대미술 프로젝트인 '아미고 문디(Imago Mundi)'를 펼치고 있다.

CREATIVE DISRUPTION SPECIAL

변방의 꽃에도 평등한 시선을 보내다 베네통 그룹의 창업자 루치아노 베네통은 은퇴 후 흥미로운 현대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우편엽서 크기만 한 시각 캔버스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나만의 작업'을 펼치는 동시대 아티스트들의 예술혼을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담아내는 '아미고 문디' 프로젝트다.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경계를 아우르며 작업하는 오화진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얘기한다.

잔적과 수집 사이, 일렉스 린 홍콩에서 만난 '현대판 덕후', 개인 컬렉터 일렉스 린.

글로벌 미술 생태계의 키워드로 부상한 아시아 현대미술을 둘러싼 생태계에서 아시아가 유례없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 미술계는 어떤 행보를 택해야 할까?

MELANI SETIAWAN KIAF를 참관하기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의 컬렉터, 멜라니 세티아완. 민간 외교사절 수준으로 활약하며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녀의 만남.

KOREAN ART SCENE

잡과 선으로 '시'를 그려내다 세계에 우리나라 미술을 알리는 데 앞장서온 김선희 관장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김기린 화백을 만나 작품 세계를 둘러싼 대화를 나눴다.

단색화의 전후, 맥락이 필요할 때 단색화를 향한 국제 미술계의 뜨거운 구애가 일시적 유행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려면 조금 더 진지하게 작품과 제반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세계 속의 한국 미술을 반추하다 리먼 마틴 갤러리의 레이철 리먼 대표가 우리나라 미술계의 현주소와 그가 기대하는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대미술을 둘러싼 '국가 컬렉션' 경쟁 한국 현대미술 컬렉션의 필요성과 미술계를 둘러싼 문제점을 줄곧 고려해온 필자가 제시하는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화 비전.

단순함의 미학을 살려내다 화가 장욱진이 오는 2017년에 탄생 1백 주년을 맞이한다. 자신에게 진실되고 솔직하고자 했던 장욱진의 자기 고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보자.

EXHIBITION IN STYLE CHOSUN

'나 자신을 일라' 안젤름 기페에서 쟁판즈까지 국내외 작가 6명의 작품을 통해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

ART MANAGEMENT

LUCY+JORGE ORTA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여온 아티스트 듀오 루시 + 호르헤 오르타와 창업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아트 경영을 펼치는 에르메네젤로 제니의 뜻깊은 파트너십.

누구보다 독창적인 현대미술의 수호자 30년 넘게 독보적인 자취를 남겨온 가르피에 현대미술재단.

SPACE & PEOPLE

NEW TATE MODERN 최근 런던에 개관한 테이트 모던 신관은 새로운 도시적, 자연적 경관을 만들기 위해 미술관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DIETRICH KLINGE IN WEIDELBACH 시대와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폭넓은 스펙트럼과 내적 성찰의 깊이를 지닌 걸출한 조각가, 디트리히 클링에.

K-아트에 빠진 파리자영 우연히 한국 미술에 매료된 걸 계기로 진지한 아트 컬렉터로 거듭난 에릭 에더.

CARLOS GARCIA DE LA NUEZ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고집으로 전통 회화를 지킨, 쿠바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중견 작가 카를로스 가르시아 데 라 누에즈.

MISCELLANEOUS

자연을 벗 삼은 예술, 미르피를 가다 20세기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도널드 저드가 여성을 보낸 미르피. 저드의 걸작들이 자연과 어우러진 이 외판 미술을 아트 애호가들이 직접 가봤다.

ALBI, THE HOMETOWN OF TOULOUSE LAUTREC 사대를 앞서간 화가 톨루즈 로트레크의 고향 일바에 가다.

THE SHCHUKIN EFFECT 파리에서 화재로 인해 열리고 있는 '현대미술의 아미노-시추진 컬렉션' 전시.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혁명을 회고하다 프랑스 건축과 도시에 획에 큰 혁명을 선사한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를 회고하다.

Style **조선일보**
FALL 2016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총괄 에디토리얼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 객원 에디터 | 이소영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 교열 | 이정환 어시스턴트 | 김수민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비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골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사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Punctually
Unpredictable**



MRGG <Event>

종이 위에 연필로 섬세한 그림을 그리는 김덕현 작가의 개인전. 작가는 개별적 사회현상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와 실재의 근본적 양상을 연필 드로잉을 통해 표현한다. 이번 전시는 첫 번째 전시 <Weeping Willow>의 연장선상에 있다. 작가는 수양버들들을 통해 고정된 개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체로서의 세계를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전시에서 무게중심이 수양버들에서 '사건'으로 이동했다는 점. 수양버들이 만든 새로운 공간에서 작품 속 인물들은 가늘게 진동한다.

전시 기간 11월 15일~12월 4일
문의 <http://mrgg.zz.vc>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유영국, 절대와 자유>

올해 탄생 1백 주년을 맞은 유영국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우리나라의 자연을 아름다운 색채와 대담한 형태로 빛아낸 작가다. 많은 미술가들이 유영국에게 영향을 받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37년 유학 시절부터 1999년 절필작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작품 1백여 점과 자료를 망라해 기대를 모은다. 그의 추상 작품은 점, 선, 면, 형, 색 같은 기본 조형 요소가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바다와 산맥, 계곡과 태양을 연상시킨다.

전시 기간 2016년 11월 4일~2017년 3월 1일
문의 www.mmca.go.kr



PKM 갤러리 <채색화: 아름다운 혼란>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출품 작가로 선정된 코디 최의 개인전. 우리나라에서 5년 만에 개최되는 개인전이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출품 작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시라는 것이 의미 깊다. 작가는 현대사회의 문화 정체성과 권력 관계에 대해 탐구하며, 다양한 문화가 빚어내는 충돌과 새로운 현상에 주목해왔다. 미국에서 작업을 시작한 후 감성과 이성,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시각 예술과 개념 미술 사이의 혼란을 경험한 작가는 이것이 아름다운 경향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전시 기간 10월 28일~11월 30일
문의 www.pkmgallery.com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칠하다(Overlaying)>

허명욱 작가의 옷칠 회화 신작 10여 점과 설치 작품 2점을 공개하는 개인전. 작가는 사물의 물감이 아니라 한국의 옷칠을 택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인위적 시간성과 자연의 시간성을 작업의 기본 재료로 삼았다. 작가는 금속 화판을 제작하기 위해 1년 내내 30℃ 이상의 온도와 70%의 습도를 유지한 고온 다습한 아틀리에에서 작업에 몰두한다. 그렇게 시간이 만들어낸 흔적과 색을 수집하고 표현하며, 사물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시선에 접근하고 사유한다.

전시 기간 10월 27일~12월 4일
문의 www.arariogallery.com



Devon Auki by Alexander McQueen, 1997 © NICK KNIGHT

대림미술관 <닉 나이트 사진전-거침없이, 아름답게>

"나는 단지 세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뿐이다." 닉 나이트는 사진과 디지털 그래픽 기술을 결합한 1세대 사진가다. 다큐멘터리부터 패션 사진, 디지털 영상 등 다채로운 장르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대영제국 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알렉산더 맥퀸, 존 갈리아노 등의 디자이너와 만든 협업 프로젝트와 사회적 이슈를 패션과 결합한 캠페인 페인팅 & 폴리티크, 3D를 이용한 실용적 조각으로 구성된 '정물화 & 케이트' 등을 특히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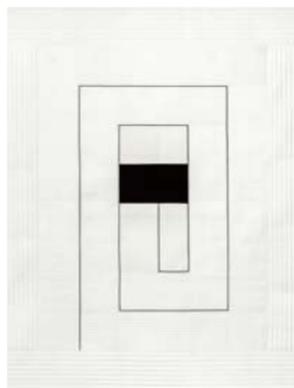
전시 기간 2016년 10월 6일~2017년 3월 26일
문의 www.daelinmuseum.org



송은아트스페이스 <툼 탄디오의 인도네시아 현대미술 컬렉션>

유명 컬렉터인 톰 탄디오(Tom Tandio)의 컬렉션을 선보이는 전시로, 인도네시아 작가 9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톰 탄디오는 욕아브리타 지역 현대미술에서 흥미로운 인물로, 젊은 작가의 실험적 작품을 수집하고 후원한다. 어린 시절을 해외에서 보낸 그이지만 인도네시아 미술의 역동적인 담론은 인도네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이후의 정치적 변화가 반영된 인도네시아 미술계의 다채로운 모습은 컬렉터와 미술가의 관계를 환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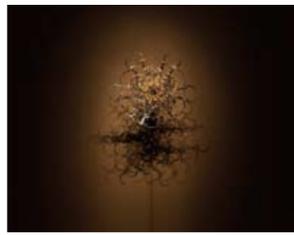
전시 기간 10월 13일~12월 10일
문의 www.songeunartspace.org



갤러리 현대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전시회 참여하는 이슬기, 양정욱, 박경근 작가는 현대인의 관계를 각자 독창적 방식으로 재해석한다. 우리를 둘러싼 관계와 일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며, 현대미술에서의 작가, 작품, 관객의 소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박경근 작가는 예술 작품과 관객의 관계를 퍼포먼스와 영상의 결합으로 보여준다. 이슬기 작가는 이불을 현실과 꿈의 경계에 놓인 존재로 간주하며, 양정욱 작가는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소재로 한 목조 구조물을 전시한다.

전시 기간 2016년 12월 7일~2017년 1월 22일
문의 www.galleryhyundai.com



대구미술관 <최우람: 스틸 라이프>

움직이는 기계 생명체로 주목받는 최우람의 개인전. 과학적 상상력과 첨단 기술, 스토라텔링이 결합된 최우람의 작품은 우리와 미술계의 지평을 넓혀주는 평계를 받고 있다. 그에게 움직임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 초·부터 신작까지 살펴볼 수 있는 이번 대규모 전시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의 오만한 욕망을 경고하며, 기계와 인간이 공생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작품의 변천 과정을 볼 수 있다. 기술뿐 아니라 종교와 철학, 자연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엿볼 수 있어 반갑다.

전시 기간 2016년 11월 1일~2017년 2월 12일
문의 <http://artmuseum.daegu.go.kr>

INSIGHT

우리는 왜 미술관에 가는 걸까? 무수한 이유가 있었지만 일상의 여유를 찾기 위해 미술관을 찾는 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옮겨줄에도 흥미로운 전시가 많다. 차근차근 개질을 따듯하게 만들어줄 겨울 전시의 향연.

Editor's Note

언젠가부터 '소통과 융합'이라든지 '이종교배라든지, '경계 부수기'라든지 하는 다양성을 둘러싼 키워드가 마치 유행처럼 번갈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고인이 된 위대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21세기는 '문화적 혼종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지요. 이제 우리는 예전만큼 시간과 거리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이동과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질적인 문화가 섞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혼종 콘텐츠'가 많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미술의 생태계에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이미 넘칠 만큼 풍부하게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사실은 영악한 전략이나 과시적인 제스처일 뿐 진정한 다양성의 공존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모토만 그럴듯하게 들릴 뿐 여전히 편견에 휩싸인 채 열린 마음으로, 평등한 눈높이로 소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지적이지요. 왜 많은 이들은 우리를 둘러싼 경계의 장막을 걷어내고 다양성을 일궈내자고 그토록 강력하게 부르짖는 걸까요? 그런 아마도 유전학적으로 이종교배가 우성인자를 낳듯이 서로 다른 관점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맞부딪히는 '우연한 충돌에서 창의적 산물이 나온다는 논리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양성의 평등한 공존과 그 뒤섞임 속에서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가 빚어질 수 있다는 이치이지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isruption)'라 불리기도 하는 가치 창출의 해법, 또는 미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예술은 언제나 시대의 편견과 주류의 견제를 넘어서면서 창조적 파괴를 실천해왔습니다. 맥락 없이 반항이나 거창한 논리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예술적 자아를 찾고 성장하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그런 시도를 억제하거나 부수버리는 '경계'에 저항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부수적인 결과물로 혁신이 나온 것일 테고 말입니다. 어떤 평론가는 바로 이런 과정 자체가 인간성의 실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사실 경계란 건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얽매어버린 글레이지 않을 까요. 무의미하게 경계 허물거나 다양성의 수용을 말하는 이들도 많지만 세상에는 그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자신의 고유성을 찾고자 본질을 파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비슷한 행보를 걷는 타인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대하는 '창조적 파괴'라도 분명 있습니다. 세상이 몹시 시끄럽고 어지럽더라도 그런 여정을 지그시 꾸려가는 크리에이티브들을 이 지점에서 일부라도 소개할 수 있게 돼 영광입니다. <ART + CULTURE Edition> 총괄 에디토리얼 디렉터 **고성연**

Dior

j'adore

THE ABSOLUTE FEMININITY



수업시간: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미술사학과 1001-042-6500 www.dior.com



아라리오 뮤지엄 동문모델II <LOW TIDE>
작고 독특한 인물 조각으로 잘 알려진 이종욱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제주 전시에서는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그의 대학 시절 작품부터 돌, 채인, 풀 등 새로운 소재와 작업 방식을 보여주는 신작까지, 그의 작업을 망라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 LOW TIDE는 물이 빠져나가 해수면의 높이가 하루 중 가장 낮은 간조를 뜻한다. 마치 간조처럼 모든 것이 날것으로 드러났을 때의 본질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도를 담았다.
전시 기간 2016년 10월 29일~2017년 7월 9일
문의 arariomuseum.org



한미사진미술관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의 스크랩북>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이 만든 스크랩북을 바탕으로 기획한 전시. 이 스크랩북은 1947년 뉴욕 한미미술관 회고전을 위해 3백 장이 넘는 작품을 작가 직접 담아 만든 포트폴리오이다. 1932년부터 1946년까지 전쟁과 포로 생활을 겪은 후 사진기로서의 고민을 담아 만든 스크랩북이기에 의미 깊다. 또 그가 인화한 유일무이한 작품 사진들 담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오리지널 빈티지 프린트와 알기, 편지 등을 보며 사진 역사의 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기간 2016년 12월 31일까지
문의 photomuseum.or.kr

SeMA 전시 아카이브 1988-2016		
2016.12.13-2017.3.25	2016.12.13-2017.3.25	2016.12.13-2017.3.25
2016.12.13-2017.3.25	2016.12.13-2017.3.25	2016.12.13-2017.3.25
2016.12.13-2017.3.25	2016.12.13-2017.3.25	2016.12.13-2017.3.25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SeMA 전시 아카이브 1988-2016: 읽기 쓰기 말하기>
1988년 서울시립미술관이 개관한 이래 개최된 전시를 선별적으로 조명한 아카이브 전시다. 소장품과 함께 미술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시 아카이브를 통해 시대에 따라 미술관의 정책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작가 윤자원, 44(Sasa), 그리고 이번 전시를 위해 구성된 제삼의 독자들(김희랑, 이정진, 현시원)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서사에 개입하며 누락되거나 배제된 부분을 보충한다.
전시 기간 2016년 12월 13일~2017년 3월 26일
문의 sema.seoul.go.kr



DDP 디자인박물관 <문화로 세상을 바꾸다>
백남준 서거 10주년을 마무리하며, 간송과 백남준이 만든 전시가 열리고 있다. 간송 갤러선 25점과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28점을 서로 연관시켜 소개하는 것. 백남준의 한미미술과 조선 시대의 고미술을 연결했다는 점도 흥미롭지만, 백남준이 한국의 고유성과 동양 정신을 구현했다는 것도 놀란다. 심사정, 김명국, 최복, 장승업, 그리고 백남준은 이상향을 지향하며 인류 문명이 어우러져 발전되길 희망한 이상주의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시 기간 2016년 11월 9일~2017년 2월 5일
문의 seoul2design.or.kr



구슬모아당구장 <와이크래프트보츠: SCARFING>
당구장을 개조해 만든 디퓨지엄 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당구장의 올 연말은 선박 브랜드 와이크래프트보츠의 전시가 장식한다. 와이크래프트보츠는 속초에 설립된 칠성장조선소를 3대째 운영하는 최윤성이 만든 브랜드로, 배를 만드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모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하나의 배가 완성되는 과정과 칠성장조선소의 모습이 담긴 디퓨멘타리 등을 통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카누와 카약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 기간 11월 5일~12월 24일
문의 www.daelimmuseum.org



스페이스 22 <금혜정 개인전-의문의 단서>
강남역 부근에 자리 잡은 스페이스 22에서는 금혜정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작가는 숲과 바다와 같은 현실의 공간에 꽃, 깃발 등의 오브제를 넣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폐허가 된 수영장에서 는 흰 나비들이 노닐고, 음산한 해안가에서는 유령의 집 같은 건물이 불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낯설지 않은 낯설을 시각화한 사진들은 작가의 메시지를 담기보다는 관람객에게 스스로 메시지를 찾게 만든다. 빛의 효과를 활용하는 작가의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전시 기간 2016년 11월 19~30일
문의 www.space22.co.kr



문화역서울 284 <페스티벌284: 영웅본색>
옛 서울역사를 미술 공간으로 바꾼 문화역서울 284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영웅적 삶을 주제로 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전시는 크게 파트로 나누는데, 권오상, 제이미 우드 등의 작가들이 누가 영웅을 말하는가에 참여해 영웅의 조건에 대해 고찰한다. '우리들의 작고도 큰 영웅', '자기 태일이 온다' 파트에서는 작품을 통해 상상 속 영웅과 미술 속 영웅을 경험하게 된다. 7개국 70명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대형 전시답게 관객 참여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전시 기간 10월 20일~12월 4일
문의 seoul284.org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위대한 낙서>
새로운 대중 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그래피티 전시가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열린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크래시, 존원, 닉 워커, 셰퍼드 페어리, 제우스, 리틀라스, JR 등 7명의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장차적인 메시지를 대동령 선거에 활용한 셰퍼드 페어리, 프랑스 문화 예술인의 명예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수상한 존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 예술인 사예가 글자와 그림의 한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길 길을 모색할 수 있을 듯하다.
전시 기간 2016년 12월 9일~2017년 2월 26일
문의 www.sac.or.kr



삼성미술관 리움 <올라퍼 엘리야슨: 세상의 모든 가능성>
물, 바람, 이끼, 돌과 같은 자연 요소와 기계로 만든 유사 자연현상을 창조하는 미술가로 잘 알려진 올라퍼 엘리아슨의 개인전. 그는 예술의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이 많아 기후, 환경, 난민 문제에서도 작품의 영감을 얻고 있기에, 2016년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아이슬란드의 이야기를 전시장에 설치한 '이끼벽', 조명으로 만든 무지개를 감성하는 '무지개 집합', 유리구슬이 성운을 연상시키는 '당신의 예측 불가능한 여정' 등이다.
전시 기간 2016년 9월 28일~2017년 2월 26일
문의 www.leeum.org



우양미술관 <세상 만들기>
판데용-소르본 파리1대학교와 누스페어 동시대미술연구소가 공동 협력한 <세상 만들기>는 인간과 동물을 주제로 삼는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기원전부터 모든 문명에서 다양한 형태를 생산해왔고, 오늘날에도 많은 작가들이 동물에게서 영감을 얻는다. 베르티 박, 로맹 베르니니, 엘리카 헤다이아, 레미 아단 등 4명의 프랑스 작가는 드로잉, 비디오, 사진 등의 조형미술 작품으로 동물과 함께 한 미술의 의미를 보여줄 예정이다. 2월에는 파리에서 한국 작가들이 같은 주제의 전시를 가졌다.
전시 기간 2016년 12월 23일~2017년 4월 16일
문의 www.wooyangmuseum.org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보이드>
개관 3주년을 맞은 서울관을 건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전시다. 서울관은 건축, 미술, 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라는 주제로 설계됐다. 전시장이 '섬'이라면, 복도, 마당 등 공영 공간은 바다인 셈이다. 전시명인 '보이드(Void)'는 빈 곳을 의미한다. 미술가 정민승과 작곡가 정재일은 전시장을 텅 빈 공명통으로 인식하고 조명과 음악으로 공간을 연출한다. 김화천은 서울관을 휴대폰 거처대로 설계해 영상 작업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 2016년 10월 12일~2017년 2월 5일
문의 mmca.go.kr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프랑스 국립 오르세 미술관>
개관 30주년을 맞은 오르세 미술관이 한국을 찾았다. 밀레의 '이삭 줍기'와 고흐의 '성모의 휴식' 등 직접 보고 싶었던 걸작들을 전시해 인구를 모은다. 외젠 들라크루아와 같은 낭만주의, 일상을 사 진처럼 묘사했던 귀스타브 쿠르베의 사실주의, 빛과 대기의 표현에 혁신적이었던 클로드 모네의 인상주의 등이 주목할 만하다. 서양 미술계에서 풍요로웠던 19세기를 중심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예술 사조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 기간 2016년 10월 29일~2017년 3월 5일
문의 www.sac.or.kr



only SHINSEGAE HERE and NOW

변방의 꽃에도 평등한 시선을 보내다

때로 혁신은 스스로의 경계를 뛰어넘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한때 과격적인 광고 비주얼과 메시지로 유명했던 베네통 그룹의 창업자 루치아노 베네통은 몇 년 전 경영 전선을 떠난 뒤 순수한 호기심으로 흥미로운 현대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우편엽서 크기만 한 앙증맞은 사각 캔버스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나만의' 작업을 펼치고 있는 동시대 아티스트들의 예술혼을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담아내는 '이마고 문디(Imago Mundi)' 프로젝트. 거창하지 않은 개인의 컬렉션이지만 '다문화적 포용'이라는 점에서 작은 혁신이라 불릴 만하다.

"지금까지 세계 미술의 중심은 서구였지만 세기말 현대미술의 중심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1996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전시 총감독을 맡은 벨스 아귈라(Nelson Aguilar)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세계화'라는 키워드가 뜨겁게 달아올랐을 무렵 구미 지역에 쏠린 세계 미술의 무게중심이 점차 이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는 비단 현대미술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를 주도하는 소프트 파워의 핵심 축인 '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일 것이다. 지구상의 다양한 문화 생태계가 저마다 목소리를 평등하게 내면서 잠재력 지든 창조성의 날개를 자유롭게 펴는 세상을 꿈꾸고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이슈일 테고 말이다.

세상은 정말로 다양한 문화 생태계로 진화하는 걸까?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현실 세계의 모습이 엄청나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다. 일부 국가나 지역의 대중문화와 예술이 보다 선명되고 더 큰 발언권을 발휘하는 듯한 판도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메인 스트림을 이끄는 소수 문화 권력 자체가 사들지는 않았지만, 신흥 세력이 부상하고 있기에 적어도 유일한 지배국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진단도 내놓는다. 디지털 혁명으로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는 취향이 파편화되면서 적어도 주류가 여럿이 될 수 있다는 '중심의 복수화'를 말하는 것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심은 흐트러지거나 분

열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복제'되는 것뿐이라고, 경계의 붕괴나 융합, 혼종 같은 키워드도 그저 주류가 만들어낸 '유행처럼 여기저기에서 반복되고 있기에 진정한 다양성이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획일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주장이다. 현대미술이라는 영역도 결국은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산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지라, 비즈니스 생태계의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의견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비판의 날을 가장 예리하게 세우는 이들도 미술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아티스트든 컬렉터든 비평가든 저마다의 방식으로 말이다. 그런 의미도 끊임없이 자신을 둘러싼 껍질을 벗고 나를 찾고자 하는 의지, 그걸 억압하는 편견이나 주류 질서에 반항하는 정신이 예술의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반방과 주류 세력의 다름과 충돌이라든지, 패러다임의 전환, 헤게모니의 이동 같은 거창한 단어를 동원하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스스로 경계를 허물며 앞으로 나아가는 '실천'을 하면서 곳곳이 자신만의 길을 가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인물들 중 올해 (스타일 조선일보) 아트+컬처 에디션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주인공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이름이다. 옷이 아니라 '인종차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발하고 파격적인 광고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 베네통 그룹의 창업자 루치아노 베네통(Luciano Benetton)이다. 하지만 그를 아트 비즈니스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나 대단한 컬렉션을 꾸리는 슈퍼리치로 소개하는

건 아니다. 루치아노 베네통은 이미 2012년 비즈니스게에서 은퇴했고, 이후 줄곧 나름의 아트 프로젝트에 심취해 있다. '세계의 이미지'라는 뜻의 '이마고 문디(Imago Mundi)' 프로젝트다. 어찌 보면 일종의 컬렉션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코 평범한 의미의 컬렉션이 아니다.

'소박하지만 거대한' 다문화적 글로벌 아트 프로젝트

10X12cm 크기의 앙증맞은 사각 캔버스. 캔버스퍼러티 아트 느낌이 물씬 나는 회화, 낙서 같은 스케치도 있고, 서체를 살린 그래픽 작업을 담은 경우도 있다. 작지만 나름의 입체감을 자랑하는 조각이 들어 있는 캔버스도 있다. 이처럼 다채로운 작품을 담은 귀여운 캔버스가 2m가 채 안 되는 커다란 나무를 칸간에 하나씩 들어앉아 있다. 가로 6칸, 세로 6칸이다. 검은 바탕에 자연스러운 나무 색깔로 칸이 나누어져 있어 작품이 나름 부각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언뜻 보면 그냥 작은 그림이나 디자인 소품을 한데 모아놓은, 소박하지만 뭔가 흥미로운 컬렉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컬렉션의 스케일은 굉장히 크다. 나라별로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1백 점이 훌쩍 넘는 작품을 담은 사각 캔버스를 차곡차곡 수집하면서 '국가별 컬렉션'을 만들어 온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이마고 문디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는 1백20여 개국, 컬렉션 수로는 1백50여 개나 된다. 참여한 아티스트 숫자는 무려 2만 명이 넘는



ICELAND Art

Elka Long
Christmas in old
Iceland
2013

SWEDEN Art

CECILIA PARBERG
HOW DO YOU BECOME A SUCCESSFUL
BEGGAR IN SWEDEN?
2015

AUSTRIA Art

Austria:
Vienna for Art's Sake!

SPAIN Art

Luis Gordillo
Pájaros en junio
2014

JORDAN Art

HAFIZ KASSIS
Eye of Envy
2014

IRAN Art

Zahra Hosseini
Untitled
2014

EGYPT Art

Reham Yakout
Hasan Untitled
2014

Yamen Art

Basheer Mohammed
Ahmed Al Jebbie
Arabic Letters
Drawing
2015

ZAMBIA Art

Zambia:
Implosion for
Explosin

BOTSWANA Art

Botswana:
The River
of Art

MADAGASCAR Art

Madagascar:
The Great Island

RUSSIA Art

Stasya Krol
Russian Export
2013

TIBET Art

Losang Gyatso
Untitled
2013

THAILAND Art

Attasit Pokpong
Untitled
2014

INDONESIA Art

Eddy Swk Semar
Indonesian Icon Puppet
2015

AUSTRALIA Art

George Ward Tjungurrayi
Untitled
2012

NEW ZEALAND Art

New Zealand:
Kiwi Consciousness

에서 좋은 협업이라고 생각했다. "참가자 중에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도 터러 있지만, 대부분 재능 있는 신진 아티스트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가들이죠. 그런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캔버스가 작아서 큰 작품을 하는 작가들에게 때로 제약이 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전시 공간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적어도 이마고 문디 세계에서는 정말로 모두가 평등하다. 실제로 내 로라하는 건축가인 프랭크 게라나 자하 하디드 같은 아티스트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똑같이 10X12cm 크기의 캔버스에 작품을 담아 보았다. 스타 작가든 소말리아의 무명 작가든 이 프로젝트에서만큼은 '브랜드'가 아니라 그저 '작품'만으로 평가받고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작은 캔버스 타고 세계 여행 다니는 현대미술관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온 캔버스가 점차 쌓이면서 루치아노 베네통은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화시키고 싶었고, 보다 많은 이들이 다문화적 컬렉션을 접할 수 있도록 2013년 베니스의 폰다치오네 조르조 치니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다. 그동안 축적돼온 다채로운 컬렉션의 일부를 한 공간에서 대중에게 선보인 것이다. 이후 그는 이처럼 이마고 문디 컬렉션을 세계 각지에서 전시회를 통해 소개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해나갔다(뉴욕, 비엔나, 세네갈 등에서 지금까지 10차례 전시가 열렸다). '순회전처럼 컬렉션이 일

종의 여행을 하는 콘셉트인데, 전시 장소에 따라 컬렉션의 조합이 달라진다. 예컨대 최근 21개 컬렉션이 중국으로 2년 일정의 장기 여행을 떠났는데, 이 대형 전시는 양궁다, 카메룬, 칠레, 인도, 리시이 등의 다채로운 컬렉션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 1백50여 개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인 만큼 이마고 문디 컬렉션은 세계지도를 펼쳐놓아야 하는데 들어온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대륙별로도 골고루 분포돼 있는 편이라 부루마를 게임이 연상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이 중 한국 컬렉션(South Korea Collection)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지만(어떤 이마고 문디 전시도 한국에서 열린 적은 없다), 북한 컬렉션(North Korea Collection)이 존재한다는 점은 자못 흥미진진하다. 북한과의 협업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조선노동당 직속 미술 창작 단체인 민수대 창작사를 통해 이뤄졌다. 북한 컬렉션은 마침 중국행 전시 여행에 동참하는 바람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인터넷 사이트(imagomundiart.com)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루치아노 베네통은 북한 도록을 펼치다가 문득 생각난 듯만 수대 아티스트들의 협업으로 탄생한 자수(embroidery) 작품을 소개했다. 호랑이, 사자 등 각종 동물을 섬세한 자수로 담아낸 '세계지도(World Map)'라는 작품인데, 80여 명의 아티스트가 3개월에 걸쳐 만들어진 대형 지도(185X300cm)라 소형 캔버스의 원칙을 깬 채 실물 규모로 전시되고 있다. 북한 아티스트들의 자수 지도를 프린트까지 해서 보여주면서



1 베네통 그룹의 설립자 루치아노 베네통 회장이 2012년 은퇴한 뒤 현대미술을 둘러싼 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신진 작가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가들을 후원하는 자선적인 글로벌 프로젝트 '이미고 문디(Imago Mundi)'는 세계 곳곳에서 전시를 열고 있다. 사진은 2015년 베네통에서 열린 전시 풍경. 2 2014년 세네갈 다카르 비엔날레에서 열린 이미고 문디 전시. 3, 4 이미고 문디 컬렉션이 소장돼 있는 베네통 커뮤니티 연구 센터 파브리카의 내부. 세계 곳곳에서 온 젊은 피를 지원하는 혁신의 전당으로도 유명한 이 센터는 루치아노 베네통이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작품을 우연히 보고는 마음에 들어해 베네치아 스타일의 빌라 마넬리를 확장하는 작업을 맡겨 1990년대 중반 재탄생한 곳이다. 이를 계기로 안도 다다오는 유럽에서 큰 인지도를 얻었다. 5 많은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준 피브리카의 아름다운 야외 풍경. 6 은퇴 후 삶에서 자신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다는 이미고 문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루치아노 베네통.

놀라운 솜씨라고 칭찬하던 그는 지금 만수무강한 또 하나의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베네통과 중국을 왕복한 마르코 폴로의 여정을 지수 지도로 만들어내는 작업이란다. 작품명은 '실크 로드(Silk Road).'

어떤 경계나 제약도 초월할 수 있는 예술의 힘

실크 로드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즐거워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이런 게 바로 예술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는데, 마침 그도 비슷한 말을 했다. "종교나 정치 등 세상에는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가 있지만, 아티스트들은 그런 틀에 갇히지 않고도 작업을 해나가고 소통할 수 있어요. 저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배운 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출장이나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잘 몰랐던 지구 곳곳의 잘 알려지지 않은 다채로운 문화와 아티스트를 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거든요.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작업을 해나가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는 그런 맥락에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작가들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아트 컬렉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우연히 시작하게 됐지만 글로벌 아트 프로젝트에서는 결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그는 사실 맹렬하게 비즈니스 전장에서 활약했을 때도 누구 못지않게 글로벌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 패션 기업인데도 워낙 인종이나 성 평등, 기아, 자유 등 다양한 국제적 이슈를 부각했던지라 팔자가 어린 시절에는 베네통이 웬지 미국 기업인 줄 알았던 적도 있다고 하자,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환적하고 멋스러운 도시지만, 보수적일 수

도 있는 고향 트레비소에서 유복하게 성장한 유럽인인 루치아노 베네통이 세상의 다양성에 그토록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혹자는 사회·문화·정치적인 메시지를 과격적으로 전달하는 베네통 특유의 광고를 영리한 비즈니스 감각으로 폄하하기도 했지만, 이처럼 은퇴한 뒤에도 지구촌의 비주류 커뮤니티에 순수한 호의와 관심을 보이는 걸 보면 그의 진정성을 마냥 의심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흥미롭게도 그 최초의 계기는 다름 아닌 '올림픽이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을 때, 1960년에 열린 로마올림픽을 구경하러 갔다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피부색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현장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을 겁니다." 오랜 세월 아트 컬렉터이기도 했기에 순수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또다시 글로벌 규모의 현대미술 프로젝트라는 큰 판을 펼쳐게 된 루치아노 베네통. 개인적인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오히려 이마고 문디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다는 그의 눈에는 생기가 넘쳐흘렀다.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면서 재능 있는 무명·신진 작가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는 글로벌 미술 매체인 (아트넷(Artnet))에서 선정한 혁신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은퇴한 기업인의 성공적인 전형을 보는 듯도 호모티기 했는데, 빠른 속도로 커져가는 컬렉션이 살짝 걱정이 됐다. 현재 이마고 문디 팀은 베네통 파브리카 공간이 자리한 건물에 '신세를 지고 있다. 아무리 여행을 많이 떠나다 해도 상당한 컬렉션이 한곳에 머물러야 하고, 각종 자료도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을 터. 당연하지만 그도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트레비소 시내에 있는 두오모 광장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감옥이기도 했던 유서 깊은 건물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마고 문디 팀과 컬렉션이 통째로 옮겨 가게 되는 셈이죠." 트레비소에 뿌리를 둔 베네통 가문은 이 도시의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데 오랫동안 기여해왔는데, 그 유산 중 하나가 이마고 문디의 본부가 되는 셈이다. 인터뷰 자리에 함께하면서 거만히 이 말을 통역하던 팀원들은 자신들도 처음 접하는 소식이라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멀리서 온 손님에게 '특종을 선사한 게 아니겠느냐.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원대한 이 뜻깊은 아트 프로젝트의 행보가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된다. 글 **고성현**



Cellan Dominguez Salmon
"The desperation of the woman of the house"(2013), Cuba.



<Tibet: Made by Tibetans>
Texts by Luciano Benetton, Paola Vanzo, Leigh Miller



Imago Mundi

지금까지 1백20개국에서 2만 명이 넘는 세계 곳곳의 동시대 아티스트들이 작은 캔버스 작업으로 참여한 글로벌 프로젝트. 이미고 문디 컬렉션은 여러 조합으로 세계 여기저기로 '전시 여행'을 다닌다.



<Brazil: Land of the Future>
Texts by Luciano Benetton, Tereza de Arruda, Andrea de Carvalho, Marcus Lontra Co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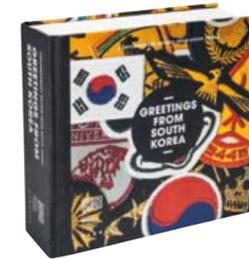
<Praestigium Italia I>
Texts by Luciano Benetton and Luca Beatrice



Sam Nikmaram
'Pitbull Dog'(2014), I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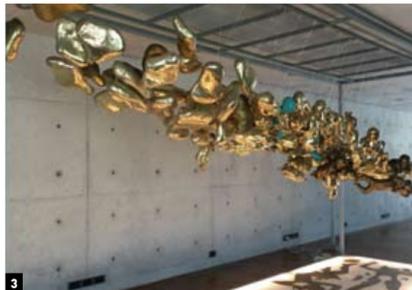
Julia Rosa Clark
'Self Portrait with Lipstick'(2013), South Africa.



<Greetings from South Korea>
Texts by Luciano Benetton, Youngjoo Ko, Shin Sun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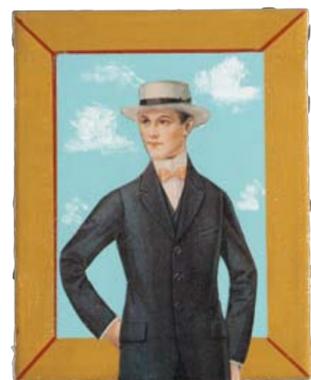
Emrah Altınok
'Metis'(2015), Turkey.



<Organix>
Contemporary artists from United States
Texts by Luciano Benetton, Diego Cortez, Anthony Curtis, Matt Ea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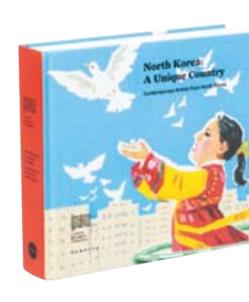
Miguel Betancourt
'Un Pueblo en la Serranía'(2007), Ecuador.



McDermott & McGough
'Untitled, 1932'(2013), United States.



Mary Schepisi
'Seeking Asylum'(2015), Australia.



<North Korea: A Unique Country>
Texts by Luciano Benetton, Pier Luigi Cecioni, Eugenio Cecioni, Yang Byong Su



Desislava Unger
'Stop thinking, start drawing'(2014), Bulgaria.

경계를 넘어서

현대미술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오화진은 섬유 미술가이지만 그녀의 작품은 그 한 가지 장르에 머무르지 않는다. 드로잉, 페인팅, 입체 조형, 공예, 오브제에 이야기를 접목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작업하는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얘기한다. 전통과 현대, 미술과 공예, 서양과 동양, 계획과 본능, 남성과 여성 등 그녀의 작품은 경계를 아우르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다.

버스 뒷자리에 앉는다. 오른쪽 벽에 '돼지 머리카락'이라고 쓰인 낙서, '건축 설비' 간판, 이번 달 전기세 고지서 '1만9천 8백원이 동시에 눈앞을 지나간다. '머리카락이 돼지 몸뚱이 형태로 지란다면 머리카락은 최대 몇 개나 될까? 1만9천8 백 개? 건축 설비-소를 바삭 말리기 위한 설비에 제일 중요한 전기! 머리카락을 비벼대서 정전기를 일으키면 돼지 가죽 표면에 상처가 날 텐데... 앵? 그럼 머릿결이 상하잖아!'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잠깐의 생각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를 잠재의식에 일단 가뒀다. 이러한 일상의 단면은 내가 작업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체계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본능이 튀어나올 수 있는 여지를 둔다. 이렇게 자유로이 방목해도 이것이 반복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상과 내용, 그리고 표현 방식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취향이고 본성이며 핵심이다.



짜짓기 프로젝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작업에도 운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작업에 임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운명에 맡긴 채 생각나는 대로 진행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완성'이라는 또 다른 형태와 마주하게 된다.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내내 궁급해하던 '완성'이라는 형태는 내겐 발견과도 같다. '무작위적인 창작 방법'은 작가의 본성과 무의식 속 취향이 노출되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창작 과정 내내 놀이처럼 작업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일명 '짜짓기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풀어나 갔는데, 설명을 더 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단 종이를 기본 내키는 대로 자른다. 그중 마음에 드는 것의 형태를 해석해 드로잉으로 표현한다. 조금 전까지는 그냥 종이일 뿐이었는데 '오화진과의 짜짓기를 통해 영감의 원천으로 거듭난 것이다(Project: What's the Figure?). 또 우연히 만난 오브제를 무작위적으로 변형한 뒤 그 변형된 상태를 대상으로 '생(生)의 스토리를 짓는다. 즉, 오브제는 '오화진과의 짜짓기를 통해 운명이 바뀐 것이다(Project II: The Fate of the Object). 또 다른 프로젝트에선 완성된 작품을 다시 탈바꿈시켜 운명의 변화와 환생 등의 이야기로도 발전시킨다(Project III: Changed the Fate). 즉흥적 창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9년 전후였던 것 같다. 그 전에는 생각을 정리하고 스케치를 하고 계획을 세워 작업에 접근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점점 속제처럼 나를 억압

하는 것 같아 겁났었다. 작업을 하면 할수록 그 행위 자체에서 욕망을 표출하는 동시에 쾌감을 얻고 싶었고, 본능적이며 주관적인 작업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사실 들여다보면 창작 방법이 '선(先)개념 → 후(後)표현'에서 '선(先)표현 → 후(後)개념'으로 바뀐 것일 뿐, 머리를 쓰는 건 같다. 좌뇌부터 시작되느냐 우뇌부터 시작되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작업에 임하는 태도와 즐거움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취향의 범위에서 매번 또 다른 맛있는 걸 찾는 식욕처럼 조각을 하면 페인팅이 하고 싶고, 페인팅을 계속하면 붓 끝에 진저리가 나서 바느질을 하고 싶고, 어떤 날은 글짓기가 하고 싶다. 이는 계획 없이 본능에 맡긴 채, 운명에 맡긴 채 작업을 하기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다 보면 작업 자체가 욕망의 발로(發露)가 된다.

개인의 문화를 구축하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작가로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내 답은 "오화진이라는 개인의 문화를 구축하고 싶다"이다. 이제 세계화는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개인의 표현이 다수의 표현을 압도할 때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평범한 개인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창작을 업(業)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좀 더 차별된 뭔가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는 개인의 문

화 구축을 제안한 것이다.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여러 국면 가운데 '정신의 소산'으로 봤을 때 국가나 민족의 문화가 있듯이 작은 범위로 개인의 문화도 있다는 가정을 해보았다. 문화가 '정신의 소산'이라면 개인의 문화를 구축하려면 그 개인의 정신부터 파악해야 하고, 그 정신의 근간이 되는 본능과 본성을 파고드는 것이 첫째 수순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즉흥적 창작 방법은 본성과 욕망을 수면 위로 올리기에 적합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무작위적 시각적 창작 뒤에 본인의 정신적 사고와 취향이 담긴 스토리를 덧입힌 '짜짓기 프로젝트' 작업 역시 이러한 흐름에 부합돼 진행한 것이다. 난 그동안 내 인생의 '모토'와 나의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의 '욕망', 여기에 나의 본성과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담아 창작해왔다. 이 과정에서 외부가 아닌 오로지 나라는 개인의 관점이 주체가 됐다. 순수 미술, 공예, 디자인, 글쓰기 등 경계를 아우르며 진행하는 여정에서 작업이란 '일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있는 '욕망' 그 자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양한 실행이 가능했던 것 같다. 나는 어떤 작업이든 개인의 문화 위에서 파생되길 바란다. 그래서 순수 창작 작업을 모티브로 하거나 거기서 파생된 방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미래엔 순수 미술이나 공예 혹은 디자인이라는 '전공'을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는 일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문화'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글·사진 오화진(미술가)

1 '신중환이웃(A Discreet Neighbor)'(2008), 162X130 cm, acrylic on linen. 2 '자피에스 에-필(GPS Animal)'(2012), 92X170X110cm, wool, nylon-wool blend, filling, hula hoop, etc., needlework, stuffing. 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공예가 되기까지)에서 전시 중인 베드 맨(Bed Man)과 환생(Reincarnation). 4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생태미술관 (별볼수조차에 출몰한 생명력이 생명을 살린다(Vitality Saves the Life)).



www.thehandsome.com

LÄTT BY T

집착과 수집 사이, 알렉스 린(Alex Lin)

한 가지에 집착하는 사람을 '덕후'라 부르며 폄하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성공한 덕후'라는 표현이 생겨날 만큼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게다가 요즘의 '덕후'들은 더 이상 집 안에 틀어박혀 하나에만 몰두하지 않고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거리낌없이 소통하며, 자랑할 줄도 안다. 홍콩에서 만난 개인 컬렉터 알렉스 린(Alex Lin) 역시 '현대판 덕후'다.



수집은 시간이 축적돼 이루어진 한 사람의 역사다. 수집가의 수장고를 들여다보면 대단한 집념과 고집, 외로움의 세월이 느껴진다. 홍콩 금융계에 종사하는 알렉스 린(Alex Lin)은 독특한 컬렉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를 컬렉터라고 간단히 소개하기에는 컬렉션의 스펙트럼이 방대하고 지식의 깊이가 남다르다. 카메라부터 도자기, 포켓 워치, 나무 상냥갑, 조각과 회화에 이르기까지 그는 일상 동안 컬렉팅을 천직이 없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마다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자랑한다. 미혼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

집착은 컬렉터로서 타고난 기질

평생 수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알렉스는 컬렉팅에 푹 빠져 산다. 그리고 그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동전이나 스탬프, 지도 같은 자질한 물건들 모으기를 좋아했어요. 수집은 저같이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때 모은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갖고 있다는 말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유럽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것이 그의 이런 수집벽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원인이었을까. 미술관과 박물관을 드나들며 예술에 관심을 갖던 그는 결국 경제학과 예술사를 같이 공부하게 이른다. 플라미너에서 이끈자인 엔트릭 오브제를 구입하기 시작했는데, 컬렉터라는 개념도 없었기에 별 원초도 취향도 없이 그저 사 모았다. 그러던 중 오래된 시장에서 첫 번째 컬렉션 대상을 발견한다. "15년 전쯤, 시장에서 우연히 카메라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1930년경 카메라도 있었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구입했어요. 이후로 카메라 관련 책을 많이 읽고 공부했죠." 그게 시작이었다. 엔트릭 카메라에 관심이 생긴 그는 카메라를 하나둘 구입했다. 그렇게 차츰 커진 카메라 컬렉션 규모는 4백 대를 훌쩍 넘겼다. 양도 양이 아닌 컬렉션의 깊이가 웅만한 카메라 박물관과 경쟁할 수준이라고 스스로도 자신 있어 했다. 요즘도 간혹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카메라 옥션을 기다렸다가 희귀한 카메라를 발견하면 구입한다. "예전과 다른 건 그냥 오래된 게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걸 구입한다는 거죠. 이렇다면 회사가 파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출사한 카메라라든지." 그의 관심은 카메라에서 도자기와 세라믹으로 나아갔다. "학창 시절에 도자기를 배운 적이 있어 관심이 없었어요. 조각 같은 도자기 오브제부터 직접 사용하는 생활 도자기까지 다양하게 있었어요. 세라믹은 주로 동양보다는 서양 작품이 많아요." 그가 영국 도예가 월터 켈러(Walter Keeler)의 도자기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일본이나 중국 도자기도 여러 점 소유하고 있다. 2~3년 동안은 포켓 워치에 매료되어 10개 정도 구입했다. "포켓 워치는 1850년에서 1950년까지 약 3백 년 동안만 제작됐어요. 그러니 컬렉션만 보아도 포켓 워치의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저는 이제 딱 보면 이 시계가 언제 제작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는 컬렉터로서 결정할 아이템에 대해서는 책을 읽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이다. 스스로도 "미쳤다고 표현할 정도. 컬렉션의 카테고리도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해도 구입할 때마다 액셀 파일로 정리해둔다. 아이패드도 컬렉션을 분류해 사진을 저장해 놓은 걸 보니 그의 꼼꼼하고 집요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명감과 만족감의 공존

회화를 좋아하지만 다른 컬렉션에 비하면 많지 않은 편이다. 젊은 작가 위주인데, 어떤 작가는 꾸준히 작품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작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0~2011년에 작은 옥션에서 일본 초현실주의 작가 다쿠미 기미의 회화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당시 처음으로 옥션에 나온 작가였는데,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없이 저질렀죠." 이후 그는 소속 갤러리에 연락해 그의 전시 소식을 받아보고, 작품도 꾸준히 구입했다. 다쿠미 기미의 섬세한 표현력과 재치는 여전히 알렉스의 성향을 담은 듯하다. 그가 미술 작품을 구입할 때 세운 한 가지 원칙은 꼭 갤러리를 통한다는 것. "갤러리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갤러리는 젊은 작가들이 작품을 보여줄 채널이고, 저 같은 사람도 작품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존경합니다." 2년 전 그가 결혼할 당시 작가가 청춘증을 디자 인해줄 정도로 둘은 가까운 사이가 됐지만, 알렉스는 여전히 갤러리를 통해 그림을 구입한다. 컬렉터 역시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소신을 지기며 오랜 세월 컬렉팅을 해온 그의 남다른 사명감 같은 것이다. 그는 다쿠미 기미에게 모욕을 받은 작품을 몇 점 더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일본 작가 히라에 이모토의 작품과, 최근에는 노조무 시바타의 작품도 구입했다.

물론 갤러리를 통해 구매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창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워치, 이메일, 이베이, 온라인 옥션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요. 사기도 많이 당했죠." 그가 중국 엔트릭 부채 컬렉션을 몇 점 보여주며 그중 95%가 알몸도 보지 않고 거래된 것이라고 했다. 작가대를 하지 않으면 돈을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실패도 겪었다. 아프리카 미술에 빠졌을 때는 관련 자식이 없어 터무니없는 걸 구입했고, 칠물 산에서 가져 온 도자기를 수집할 때는 의미 없다고 느껴 중도에 포기했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컬렉팅을 하는 건 투자자 아니라 개인적 만족감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컬렉션을 판매하는 경우는 되팔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더 큰 작품을 사기 위해서(자급까지 판매한 건 겨우 1~2점뿐이지만), 그에게 컬렉션이 인생에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수집은 자식을 좇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현대미술은 순전히 취향에 따라 자란 카메라, 부채, 시계 같은 것은 알아버린 시간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컬렉팅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처럼 내인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고요." 그에게 수집은 오브제가 아닌 자식을 모으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순수한 기쁨이다. 글 김민서



2

4

5

6

1 자신이 수집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알렉스 린. 2 4백여 대에 이르는 알렉스의 카메라 컬렉션 일부. 3 알렉스가 구입한 다쿠미 기미의 'The Sarunofini Portrait'. 안반 에이크의 명작 '아르놀피니'. 알렉스(The Arnolfini Portrait)를 모티브로 그렸다. 4 그는 중국 부채를 수집하는데, 영국으로 수출된 엔트릭 부채만 모은다. 5 영국 도예가 월터 켈러의 도자기. 6 다쿠미 기미가 그려준 알렉스의 청춘증. 카메라 수집가인 알렉스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편안함을 넘어 위대함으로 기록될
단 하나의 매트리스

THE HERITAGE OF SLEEP SCIENCE
ACE HERITZ



글로벌 미술 생태계의 '키워드'로 부상한 아시아

현대미술을 둘러싼 생태계에서 아시아가 유례없이 주목받고 있다. 시장의 규모로도, 거침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컬렉터로도, 잠재력 있는 작가의 원천으로서도 그렇다. 이런 현상은 구미 지역에 쏠렸던 구도가 점차 변하면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일까?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변화의 흐름이 거세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이 가운데 과연 한국 미술계는 어떤 행보를 택해야 할까?

20 그동안 지칠 줄 모르고 달아오르던 세계 미술 시장이 숨 고르기를 하는 걸까. 이 생태계를 둘러싼 움직임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시장의 '성적' 자체는 살짝 주춤하다. 시장 동향을 조사하는 유럽순수예술재단(TEFAF)이나 아트프라이스닷컴 등에서 나온 주요 보고서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세계 미술 시장 규모는 실제로 다소 축소됐다(Art Economics'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작품 판매액이 72조원대로 전년 대비 7% 하락). 최근 들어 아메리칸 컬렉터의 힘을 유독 과시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 위기의 그늘 아래 집체를 면치 못했다가 2010년 이후 되살아난 뒤 줄곧 상승 기도를 달려왔던 글로벌 미술 시장인 만큼 이제는 성장세가 슬슬 꺾일 때도 되지 않았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사실 변수가 워낙 다양하지만 시장의 앞날을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트라는 키워드 자체는 여전히 광장히 핫하다는 점, 그리고 2015년 세계 미술 시장이 다소 위축된 결정적인 원인은 '중국'이었다는 사실이다. 반부패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이중 타격을 입었기 때문일까. 미술계에서도 위세를 떨쳐온 중국의 최근 시장점유율(TEFAF 2015년 보고서 판매액 기준)은 19%로 전년 대비 3% 하락하며 1위 미국(43%)과의 격차가 벌어졌고, 전년에 동등이었던 영국(21%)에 뒤처지며 3위로 밀려났다. 2015년 중국 경제 시장 규모는 전년에 비해 23% 감소한 한화 838천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물론 '억, 억' 소리 나는 소수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중국에서 1백만달러가 넘는 하이엔드 미술품 시장의 기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세계 미술 시장이 무려 78%나 규모를 키워왔으니 아무래도 양극화 이슈가 제기될 만큼 편애를 받아온 블루칩 작품의 공급도 제한적이고 미술품 구매에 뛰어드는 신규 고객이 쏟아져 나오는 속도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았냐는 주장이 나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소비의 핵심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40세 이하의 밀레니얼 세대 컬렉터와 고화력 중산층 미술 애호가의 부상, 그리고 아직은 비중이 적지만 무서운 속도로 세를 키우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미술 생태계 자체가 넓어질 수 있다는 긍정론을 내놓는 이들도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영민하고 발 빠른 이해관계자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새로운 영토를 구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유력 후보, 아니 이미 대세로 떠오른 곳은 아시아다. 최근 글로벌 미술 시장의 열기가 다소 시든 모습도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결과 아닌가. 지금 세계 미술계는 아시아를 주시하고 있다. 미술품을 구매하는 수요 측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진 작가나 스타의 등장이라는 공급 측면에서도 그렇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온갖 경계가 무너지면서 격변을 겪고 있는 글로벌 미술 생태계에서 역동적인 아시아 시장과 콘텐츠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향후 행보는 어떤 식으로 펼쳐져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트 허브를 꿈꾸며 투자하는 아시아 도시들

세계 미술 시장의 관심이 아시아 시장으로 본격 쏠리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 세계 최대 아트 페어인 스위스의 아트 바젤을 주관하는 MCH그룹이 지역 페어인 홍콩 아트 페어(Art Hong Kong)를 인수해 아트 바젤 홍콩으로 재탄생시킨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트 바젤 홍콩은 아트 바젤이라는 막강한 브랜드 파워와 함께 크리스티와 소더비 등 세계 최대의 옥션 하우스가 정기적으로 경매를 열고, 가고시안, 화이트 큐브, 갤러리 페로롱 등 세계 유명 갤러리의 분점이 있는 홍콩의 지역적 장점을 내세워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미술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차지하게 됐다. 일례로 올가를 한류에 이끄는 팝 스타 박병명의 탐이 소더비와 손잡고 컬렉터가 아닌 큐레이터로 나서 화제가 됐을 때도 그 데뷔 장소는 소더비 경매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홍콩이었다.

특히 아트 페어는 2010년 이후 거래 규모가 49% 증가했고, 전체 미술품 거래량의 40%(2014년 기준)를 책임지는, 그야말로 각광받는 플랫폼이다. 아트 바젤이나 파리에서 열리는 피엑(FIAC) 같은 대형 국제 아트 페어 말고도 지역 아트 페어가 우후죽순 생기는 이유도 신규, 또는 잠재 고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매력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아트 페어의 범람으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그 와중에 올 초에는 30년 전통을 자랑하던 호주 멜버른 아트 페어(Melbourne Art Fair)가 주요 갤러리 유치에 실패하면서 아예 취소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당시 멜버른 아트 페어 관계자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갤러리들이 국제적인 성격이 짙고 규모도 큰 아트 페어에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트 페어의 세계에서 빈약한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멜버른의 비극은 비즈니스 모델과 지역의 매력도가 부합하지 못해 생겨난 실패일 뿐 '브랜드'를 내세운 대형 글로벌 아트 페어의 위세에 눌려 상대적으로 규모나 인지도에서 뒤쳐지는 지역(local) 아트 페어가 기를 못 펴고 있는 건 아니라고 진단한다. 투자 자본이 복잡하게 엮이는 데다 규모나 성적, 참가자, 관람객 구성은 어차피 수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므로 '국제'와 '지역'의 경계를 정확히 나누기가 애매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 아시아에서는 그 경계가 있다고 할 만한 아트 페어가 세계적인 '예술 허브'를 꿈꾸면서 가치를 올리고 있다. 올해로 벌써 15회를 맞이한 한국국제아트페어(이하 KIAF)를 비롯해 2011년 시작된 싱가포르의 현대미술 장터 아트 스테이지(Art Stage), 그리고 이런 흐름에 동참해 올 초 첫 행사를 개최한 인도네시아 아트 스테이지 자카르타(Art Stage Jakarta), 상하이에서 열리는 웨스트 번드 아트 & 디자인 페어(West Bund Art & Design Fair) 등을 대표 주자로 꼽을 수 있다. 아트 페어의 콘텐츠와 격을 높이기 위해 비엔날레와 흥미로운 전시 등 각종 아트 행사가 동시에 기획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박병명 작가의 작품

아시아 '밖'에서도 아시아를 논하는 시대의 도래

흥미로운 점은 아시아를 둘러싸고 들쭉날쭉한 움직임과 관심이 내 집 잔치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피엑이 열리는 기간인 10월 말 아시아 현대미술에 초점을 둔 아트 페어 아시아 나우 페어(Asia Now Fair)가 파리에서 처음 막을 올렸다. 글로벌 미술 매체인 (아트넷(Artnet))에서는 유럽에서 아시아 현대미술에만 주안점을 둔 아트 페어는 처음인데, 2회를 맞이한 올해에는 그 규모가 2배로 커졌다며 성공 가능성을 점치는는 이르지만 잠재력만큼은 높았다. 유럽의 주요 전시 공간을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 작가들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는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올 초 파리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는 당대 최고의 중국 작가를 대거 소개하는 블루버스터 전시를 개최했고, 최근 폼피두 센터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설치미술가 양혜규 개인전이 열렸다. 또 뉴욕 구겐하임이 개최하는 휴고 보스상은 필리핀의 마리아 타나구치가 거머쥐었고, 세계적인 현대미술 뮤지엄인 런던 테이트 모던 신관은 태국의 영상 아티스트 아파차퐁 위라 세타쿤의 작품을 들여놓는 등 여지거기에서 아시아 현대미술 작가들이 조명을 받는 다양한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예술 세계에서든 항상 참신한 걸 찾지 마련입니다. 아시아 미술은 새로울뿐더러 가격도 합리적이라 2006~2012년에 서구의 유명 컬렉터들이 많이 구입했어요. 더불어 중국 경제가 급성장했고, 한국의 K-팝을 위시해 아시아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바람에 탄력을 받은 면도 있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밖에서 아시아 미술을 논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시아의 긴 역사에 대해 좀 더 알고 새로운 예술가,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단색화 열풍도 좋은 예죠." 얼마 전 KIAF 참관을 위해 서울에 온 아트 컨설턴트 제한 추(Jehan Chu)의 설명이다. 그렇다. 일찌감치 남다른 대접을 받았던 일본 작가들을 제외하면 미아시아권에서 아시아 작가가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쏠렸던 적이 있을까. 당장 한국

작가만 해도 화이트 큐브, 페로롱 같은 세계 유수 갤러리에서 단색화 작가 개인전이 열리거나 글로벌 경매에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모습이다. 홍콩의 매머드급 프로젝트 2019년 개관을 앞둔 컨템퍼러리 뮤지엄 M+를 향한 국제적 관심도 미술 시장의 중심이 아시아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제한 추는 "M+는 아시아 지역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다양한 아티스트를 지원할 예정이고, 동시에 관련 업계 종사자 교육, 미술품 거래 등을 둘러싼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라 경제적으로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해요"라며 큰 기대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근본'을 명심해야 할 한국 미술계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미술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했지만 K-아트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 2015년 단색화의 인기를 등에 업고 세계 경매 시장에서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톱 10 대열에 올랐고, 이를 계기로 해외 컬렉터들의 관심이 다른 한국 작가들로도 확대되고 있는 반가운 조짐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미술 한류'로 인한 가격 상승에 흥분한 나머지 근본적인 토대나 고찰 없이 마케팅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이 쏟아진 데다, 해외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정작 국내 미술계는 여전히 불투명한 이슈가 산재해 있고, 호황기를 누렸던 2000년대 중반에 비하면 시장도 별로 활성화되다가 국제화 흐름을 타고 있지 못하는 대조적인 현실을 지적하는 이들도 많았다. 특히 '아트 허브'라는 포부를 감안할 때 이미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쥔 홍콩 미술계의 발전과 비교되는 느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일까? 올해 KIAF는 작심한 듯 꽤 달라진 면모를 보였다. 일단 갤러리 숫자를 줄여 부스 자리와 크기를 키우고 통로를 넓혀 공간감을 끌어올렸다. '국제 행사다운 모습을 보이는 데도 상당한 신경을 썼다. 작품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작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아시

아 미술에 관심을 지닌 세계 곳곳에서 유수 컬렉터와 미술계 관계자를 대거 초청해 해외 페어에 온 듯하다는 평가도 이끌어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수치로도 반영됐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5만3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지만 매출은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약 2백35억원을 기록해 실질적인 작품 구매층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시 공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화화중심의 구성과 참신한 작품의 부재 등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 아무래도 국제적인 미술 행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미숙한 진행 태도는 그렇다 치고, 갤러리와 유관 기관, 국내 컬렉터, 크고 작은 지역 커뮤니티의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흥미로운 콘텐츠를 다양하게 생산하는 시스템과 마인드가 많이 결여되었다는 점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느껴졌다. 이는 비단 KIAF의 문제가 아니다. 생태계의 다양성이 뒷받침되어야 아트 페어만이 아니라 국내 미술계가 존속할 수 있고, 우리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홍콩의 비영리 미술 조직 파라사이트의 스타 큐레이터인 코스민 코스티나스(Cosmin Costinas)의 주장처럼 파라사이트가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는 이유는 젊은 작가를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이 독립적으로 활약하면서도 정부의 후원을 받고 상업적인 페어와 다다도 협업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실력은 있지만 다소 소외된 작가를 몰살당면 지원하는 편견 없는 컬렉터가 더 많아져야 콘텐츠가 풍부해지면서 생태계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KIAF를 참관한 홍콩의 건축가이자 저명한 컬렉터 윌리엄 림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잘 알고 그에 집중한다고 봅니다. 예술을 둘러싼 부수적인 게 아니라 '미술' 자체, 그리고 '아티스트' 같은 근본적 주제에 대한 담론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갤러리는 아트 페어든 개성을 잃게 마련이고, 결국 살아남기 힘들어지겠죠." **글 김민서**

Melani Setiawan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의 민간사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아트 컬렉터 멜라니 세티아완(Melani Setiawan)은 단순히 미술 애호가라고 하기에는 행보의 반경과 깊이가 예사롭지 않다. 그는 베니스 비엔날레 인도네시아 파빌리온의 후원위원인 데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아트 스테이지 자카르타 아트 페어(2016년 8월 초)에서 선보인 컬렉터 특별전을 주최한 4명 중 하나다. 이들 중 다른 한 명인 톰 탄디오(Tom Tandio)는 송은아트센터에서 《예술과 사랑에 빠진 남자, 톰 탄디오, 개인적 서사로서의 컬렉션(Tom Tandio - The Man Who Fell into Art: Collecting as a Form of Personal Narrative)》 전시회를 열고 있다. KIAF 개최 기간 동안 멜라니와 톰 탄디오, 그리고 세계적인 컬렉터로 내년에 상하이에 있는 본인 소유의 유즈 미술관에서 단색화 전시를 열 예정인 인도네시아 화교 부디 텍(Budi Tek)이 동시에 한국을 찾았다. 싱가포르, 대만 등지에서도 여러 컬렉터가 방문했는데, 이들은 워낙 훌륭한 네트워크로 여인지라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데다, 멜라니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벨기에, 프랑스 등지에서 온 친구 컬렉터들까지 합세해 서울은 잠시나마 세계 컬렉터의 집결지를 방불케 했다. 세대와 국경, 언어를 초월한 서로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별 이해관계 없이도 예술을 향한 사랑 하나로 모인, 그야말로 '위 아 더 월드'의 현상이었다.

세계를 누비는 진정한 '글로벌' 컬렉터의 삶

멜라니는 이미 의사로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한 70대 여인이자다. 그런데 한국에 머문 일주일 동안 아트 페어로, 미술관으로, 갤러리로, 작가의 스튜디오로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적인 스케줄을 소화해낸 그의 체력과 열정은 나이가 많지 않을 정도였다. 그게 끝도 아니었다. 설 새 없이 바쁜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의 발상지로 잘 알려진 욱아카르타(Yogyakarta)로 떠나 현지 작가들의 오픈 스튜디오 행사에 컬렉터들의 투어 리더로 참여했고, 곧바로 싱가포르 비엔날레로 날아가다가 다시 인도네

시아로 돌아와 본인의 소장품 3점을 포함한 욱아카르타의 예술가 단체 MESS56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 《예술계여(Dear Art World)》 오픈식에 참석했다. 이것도 다가 아니다. 겨우 2~3일 휴식을 취한 뒤 그는 다시 상하이 아트 위크를 찍고, 그다음 주에는 타이베이 아트 위크를 방문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큐레이터가 제트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며 온갖 비엔날레를 관장했지만, 이제는 컬렉터들이 세계를 누비며 온갖 미술 행사에 참여한다. 멜라니 세티아완이야말로 '젯 셋 컬렉터(Jet Set Collector)'의 전형이다.

컬렉션의 원칙, 우정

하지만 그가 특별한 건 화려한 아트 셀럽이어서가 아니다. 열린 마음으로 작가의 지명도, 큐레이터의 추천이나 평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컬렉터여서다. 그 원칙은 '우정, 즉 작가와의 관계'! 그는 작품을 선택하기에 앞서 가급적 작가를 직접 만나보려고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갤러리스트를 통해서라도 작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자 한다. 컬렉터가 된다는 건 단지 결과물로서의 작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삶의 어떤 단계에 있는 작가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멜라니는 1977년 완성한 새집을 꾸미기 위해 이드란 유스프(Idran Yusuf)의 작품을 사들인 첫 컬렉션 이래 지금까지 한번 구매한 작품은 되팔 적이 없다고 한다. 불렀집 작가를 찾고, 어느 정도 작품 값이 올랐다고 싶으면 되팔아 차익을 거두는 투자자형 컬렉터와는 사뭇 대조적인 행보다. 컬렉터로서의 윤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당신이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됩니다"라고 대답한다. 친구를 돈이나 이득의 측면으로 평가할 수 없듯이, 그에게는 컬렉션이 곧 우정의 텃밭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의 대표 작가로 자리 잡은 에탕 위하소(Etang Wiharsa)와는 20여 년 전부터 친구가 됐는데, 에탕의 결혼식은 물론 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몸소 방문해 축하해줄 정도로 한 가족처럼 지낸다. 위하소는 멜라니

세티아완의 집에 직접 커다란 벽화를 그려주기도 했다. 이곳은 멜라니가 소유한 자택의 별채로, 각종 소장품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다. 그는 조금씩 땅을 사서 전통 가옥을 짓고 자신의 컬렉션을 전시하다가 2008년부터는 아예 '아트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시와 세미나 등 비영리 문화 예술 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직 대중에게 공개하지는 않지만, 향후 그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훗날 뮤지엄을 짓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답이 돌아왔지만, '아트 스페이스'는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미래의 청사진이 아닐까 싶다.

수집을 위한 모음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모음

다행히도 멜라니의 뮤지엄은 지금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다. 그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인스타그램을 한다. "전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나오기 전부터 어디를 가나 항상 사진을 찍었어요. 그중 특히 좋은 작품과 작가의 사진은 별도로 인화해 주변 친구들에게 보라고 나눠줬죠. 인스타그램 덕분에 일일이 전해주지 않아도 친구들과 함께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돼 정말 좋아요."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각종 채팅 앱으로도 언제든지 연결되는 그와의 대화는 종종 그의 나이도, 본래는 의사였다든 점도,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만든다. 원래 친했던 다정한 친구처럼 느껴진다. 누군가 와서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다가가 스스럼없이 인사를 나누고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는 특유의 태도 덕분일 것이다. 이번 KIAF 기간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된 이가 바로 멜라니였을 거라는 점을 의심치 않는다. 그는 또 만난 사람과는 반드시 함께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겨두는데, 인도네시아 작가 아티야 노발리(Atiya Novali)는 멜라니의 개인 아카이빙에 큰 흥미를 느껴 이를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하는 작품 '낯선 대화(Conversation Unknown)'(2015)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앞서 언급한 2016년 아트 스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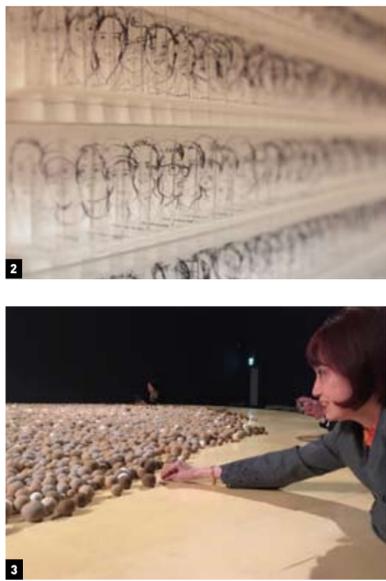
ARE Ervan Rustam

지난 10월 중순에 열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참관하기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의 컬렉터, 멜라니 세티아완(Melani Setiawan). 내과 의사로 40여 년, 그와 동시에 컬렉터로서도 40여 년을 보낸 인물이다. 한국은 의학 세미나 차원에서 여러 번 다녀갔지만, 순수하게 미술 행사만 위해 찾은 건 처음이라고. 그는 K-아트를 제대로 둘러볼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들떴다고 했지만, 일개 컬렉터 차원이 아니라 여러모로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외교사절 수준으로 활약하며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해온 그와의 만남은 우리로서도 반가운 일이자 배울 점이 많은 소중한 기회였다.

자카르타 컬렉터의 전시 부문에 소개됐다. 요즘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그동안의 '비주류' 지역 미술이 예전에 비해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언어 장벽과 한정된 정보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세계 미술계의 미개척지에 속한다. 멜라니는 인도네시아의 미술을 알리면 '경험해보라고' '그답게' 강조한다. "직접 와서 대형 전시를 보세요. 자카르타 비엔날레, 욱아아트 페어, 아트 스테이지 싱가포르 등 국제적인 행사가 점점 많이 열리고 있어요." 멜라니의 모국 사랑은 유명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컬렉션 스펙트럼이 자국 작가나 특정 장르에 한정돼 있지는 않다. 한국 작가의 경우로는, 몇 해 전 일본의 아트 도쿄 페어에서 갤러리 스케이프를 통해 구입한 정지현 작가의 키네틱 설치 작품이 있다. 어두컴컴한 전시 공간에 천장을 만들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 그 속으로 다락방을 훑쳐보는 상황을 연출했던 대안 공간 사루비아 다방에서의 정지현 개인전을 되돌아보면, 대다수 한국 개인 컬렉터들을 비롯해 웬만해서는 엄두(?)를 내기 힘든 작품이라는 생각에 감탄스러웠다. 싱가포르 푸르덴셜 아이 어워드의 수상자 침 ↑ 폼(Chim ↑ Pom), 또다른 작가 리오타 야기(Lyota Yagi)의 작품들도 그의 컬렉션 목록에 들어 있는데, 전부 비디오 아트 작품이다. 장르나 유명세를 따지지 않고 그저 작가의 예술 세계에 반해 수집하는 이런 태도는 "작품은 아티스트와의 대화를 열어주는 매개체"라는 그의 발언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벽을 멋지게 장식하기 위한, 혹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가 아니라, 작가가 그 자체만을 보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서포터형 컬렉터. 본래 컬렉터란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글 김성애(이안아트컨설팅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겸임 교수)



1 본인 소장품을 전시해놓은 자카르타 자택의 별채인 '아트 스페이스'에 있는 멜라니 세티아완. 배경에 보이는 건 그의 '찰산'인 에탕 위하소(Etang Wiharsa) 작품. 'Your Pleasure as Poison' (2010), aluminum cast. 2 아트 스테이지 자카르타의 《컬렉터스 쇼(Collector's Show)》 전시에 출품한 멜라니의 소장품. Aditya Novali, 'Conversation Unknown' (2015). 3 KIAF 기간 중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김수자 개인전(2017년 2월 5일까지)을 찾은 멜라니 세티아완. 4 아트 스페이스의 외관. 위부터 에탕 위하소의 부조 작품, 오른쪽에 야니 마리아니(Yani Mariani)의 부조 작품, 그리고 중앙에 오키 레이 몬탈라(Oky Rey Monthal)의 벽화이다. 5 아트 스페이스 내부. Ay Tjoe Christine Plat Hilam(Black Plate)(2010), copper plate and white etching ink, 100X200cm. 6 자택 내부. 벽 위에 걸린 기묘한 그림 역시 에탕 위하소의 작품. 'Mermaid'(2005), oil on canvas, 150X600cm. 7 자택 정원. 나무 조각은 테구 오스텐리크(Teguh Ostenrik) 작품, 'Little Bundle of Joy'(2010). 8 아트 스페이스에서 제일 큰 공간 내부. 벽 위에 보이는 검은 드로잉은 에탕 위하소가 직접 그린 벽화, 'Expanded Dreams'(2011), 260X900cm. 이 밖에 왼쪽부터 헤리 도노(Heri Dono)의 'Mees-tro Aftand'(2009), 초록색 회화 작품은 에탕 위하소 작품 'Rumah diatas Batu(Blue sunflower)(2006), 맨 오른쪽은 에코 누그로호(Eko Nugroho)의 'I am the Truth'(2005).



Interview



2016 Art+Culture STYLE CHOSUN

점과 선으로 ‘시’를 그려내다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는 김기린 화백. 그는 어릴 적부터 생텍쥐페리를 동경했고, 시인이 되기를 꿈꾸며 불문학을 전공했다. 파리로 유학까지 떠났다가 글을 쓰는 대신 그림을 그리게 된 김 화백은 한국에서는 덜 알려진 편이지만,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정받아왔다. 최근 세계적인 갤러리가 주최하는 뉴욕 개인전을 앞두는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어 반갑다. 세계에 우리나라 미술을 알리는 데 앞장서온 김선희 관장이 갤러리 현대에서 열린 개인전을 위해 한국을 찾은 김 화백을 만나 작품 세계를 둘러싼 대화를 나눴다.



김기린 화백의 작품이라고 하면 아마도 원색의 강렬한 모노크롬 추상화를 떠올릴 것이다. 그의 작품에 대해 세월이 갈수록 더 관심이 커진다는 김선희 관장(제주도립 김창열 미술관)은 김 화백의 작품은 특히 더 사진이 아니라 “반드시 눈앞에서 직접 보고 명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최고의 카메라로도 작품의 섬세함과 울림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작품을 지긋이 바라보면 명상에 빠지고, 어느새 점과 선의 무수한 반복으로 위안받게 된다. 인간의 한계와 생로병사 역시 이렇듯 순환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가 화폭에 담아내는 무수히 많은 점과 선은 자세히 보면 작품마다 형태와 질감, 결, 그리고 붓놀림의 강도가 다르다. 그리고 이 다름이 아름다운 시의 리듬을 이룬다. 김 관장은 전시 기획자로서 과거에는 작품의 외형적인 면에 치우쳐 감상하곤 했지만, 이제는 인간미와 정신의 깊이가 담긴 작품을 편애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김 화백의 작품을 보면 거친 마음과 욕심이 정화된다고 했다. 김 관장은 <스타일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김 화백과 단독 인터뷰를 나눴다.

김선희 때로는 30화까지 겹겹이 물감을 칠해서 작품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김기린** 정확하게 계산한 적은 없지만 유희를 겹겹이 칠할 때는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1~2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김선희 흰색은 원래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지만, 겹겹이 색을 칠한 작가님의 흰색 작품은 빛을 흡수합니다. 또 검은색은 원래 빛을 흡수하지만 작가님의 검은색 작품은 빛을 반사한다고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뜻 흰색처럼 보여도 사실은 단순한 흰색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울림을 느꼈어요. 붉은색, 녹색, 파란색에는 또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기린** 유희 물감이 겹겹이 쌓이면 빛의 반사와 흡수 작용이 일어나 그때그때 색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흑백인 경우 반사와 흡수로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색들은 따뜻한, 차가움으로 말할 수 있지요. 파란색은 따뜻하고, 빨간색은 차분하게 가려앉은 느낌을 줍니다. 적, 청, 황, 흑, 백은 우리가 잘 아는 오방색이므로 한국의 정서를 담았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함경남도 고원의 계절과 햇살의 느낌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고, 대학 시절까지는 한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고국의 정서를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프랑스와 한국의 정서가 조화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서 기쁩니다.

김선희 회화만 잘 알려져 있지만, 조각 작업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각 작품을 만드느니, 회화와 연결 고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기린** 1970년대 구상했던 충만한 비움을 이루는 공간과 작품 'Inside, Outside', 'Visible, Invisible'의 관계를 표현해보고자 서신의 청석과 이탈리아 카라라(Carrara) 지역의 대리석으로 조각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일까 고려했지만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김선희 집중과 반복이 이뤄지는 작가님의 작품은 감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순화되고 명상하게 만듭니다. 작가님께서도 작품에 몰두하면서 일종의 몰아일체 경지에 이르는 경험을 하시리라 추측되는데, 수행과 같은 작업을 거치면서 직접 체험한 순화와 집중은 어떤 것일까요? **김기린** 몰아일체의 경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집중해서 일하다 보면 스스로를 잊어버리는 비움의 상태가 되면서 붓놀림도 가벼워집니다. 제 작품을 보며 인간의 거친 마음을 정화하고, 자연과 시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품에 점을 찍게 된 건 복잡한 이 세상에서 그림을 볼 때, 마음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건 무엇일까요? 하는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점은 시작일 수도 끝일 수도 있고, 선도 되고 형태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도 생각도 흔적도 있지요. 붓과 내 손의 단순한 움직임으로 색을 캔버스에 올려놓고, 점 하나하나가 다 같은 듯 다른 느낌을 만들었을 때 그림을 보는 이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김선희 작가님의 작품은 다른 단색화 작가의 작품이나 추상 표현주의 작품과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단색화 작가들의 작품과 마크 로스코의 작품과의 공통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린** 마크 로스코(Mark Rothko)는 존경하는 작가이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콜라 드 스탈(Nicolas de Staël),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니콜라 드 스탈의 지중해 분위기의 시원함과 탁 트인 느낌을 주는 작품에 매료됐고, 조르주 브라크는 그림에서 느껴지는 겸손함이 아름다운 작가라 좋아합니다. 카지미르 말레비치는 검은색을 즐겨 사용하는 미술가여서 매혹적입니다. 처음 다중대학교에서 미술사 강의를 들으면서는 이탈리아 거장 조토(Giotto),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등을 좋아했습니다.

김선희 1965년에 첫 전시를 하셨으니 벌써 데뷔 50주년을 넘었습니다. 최근 갤러리 현대, 리면 머핀 갤러리 등 국내외 대표 갤러리와 함께 두 건의 큰 전시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작품에 대한 구상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추구하고 싶은 형식의 작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기린** 새로운 작품보다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더 깊이 가려고 합니다. 80세 고개를 넘고 보니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할 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작품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작품이 완벽하지도 절대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선희 회고전 형식의 이번 전시를 돌아보면서 50여 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텐데요. 작가님의 미술 철학 변화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김기린** 주위에서 느끼는 감동을 색으로 표현하는 일을 선택한 이상, 하고 싶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기에 논리적으로 미술의 개념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충실히 내 일을 해나갈 수밖에요. 저는 작업을 할 때 따로 평가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작가의 순수한 마음과 정신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김선희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요? **김기린** 시간, 공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작가가 느끼고 표현하려고 하는 감성이 전달된다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는, 객관적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시각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김 화백의 작품 제목 'Inside, Outside'와 'Visible, Invisible'은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 폰티(Maurice Merleau Ponty)의 책에서 빌려왔다. 'Inside, Outside', 'Visible, Invisible'과 같은 단어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로, 안이라고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밖이라고 반드시 밖만이 아닌 듯싶어, 그런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고자 따은 제목이라고 했다. 아직도 시인을 꿈꾼다는 작가는 전시를 보는 관람객들에게 젊은 시절부터 암송한 청록파 시인 박두진의 해를 읽어주고 싶다고 했다. 물결처럼 잔잔히 흐르는 시와 미술의 공통점을 그의 작품에서 발견하게 된 건 그런 연유에서였을까. 시를 눈으로 읽고 있으면 나지막한 울조림이 귓가에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과 비슷하게, 작품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노라면 시의 운율이 느껴지고 어느새 상상의 나라가 펼쳐지기도 한다. **정리·글 이소영**



1, 4. 오는 11월 27일까지 갤러리 현대에서 김기린 작가의 개인전을 감상할 수 있다. 2 'Inside, Outside', 1982, oil on canvas, 250X165cm. ©갤러리 현대
3 김선희 관장과 김기린 작가가 전시장에서 작품을 둘러보며 인터뷰를 나눴다. 5 'Visible, Invisible', 1970, oil on canvas, 130X162cm. ©갤러리 현대
6 'Inside, Outside', 1980s, oil on canvas, 162X114.5cm. ©갤러리 현대



5. 사진: 이소영

단색화의 전후, 맥락이 필요할 때

단색화를 향한 국제 미술계의 뜨거운 구애가 일시적 유행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려면 조금 더 진지하게 작품과 제반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미 한국 미술의 지반이 된 원로들만이 아니라, 젊고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동시시대 미술과 거기 담긴 잠재력을 넓은 시야로 객관화하고 미술계의 다른 영역으로 네트워크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우선은 우리 안에서 단색화를 제대로 소화하는 데서부터.

KOREAN MONOCHROME PAINTING

2014년 가을부터 2016년 봄까지 대략 2년의 기간에 걸친 국내 미술계의 이슈는 단색화였다. 현재도 그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과거형으로 말하면 무리일지 모른다. 다만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때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다. 이 시기에 갑자기 해외에서 불어닥친 한국 현대 추상화화를 향한 폭발적인 관심에 미술계 곳곳은 반신반의와 흥분, 의구심과 기대감이 뒤섞인 분위기로 물들었다. 이런 현상을 보고는 가장 기뻐했을 이들은 1970년대 한국 미술계의 젊은 실험 미술 세대로 등장해 1980년대까지 주류를 풍미했지만 19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바람, 2000년대 컨템퍼러리 아트의 득세에 밀려 자칫 잊히는 듯했던 원로 단색화 작가 당사자들일 것이다. 정상화, 박서보, 하중현, 이우환 등이 바로 그들이다. 고 권영우, 고 윤형근, 고 정창섭 등도 역시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작가들만이 아니라 큐레이터, 비평가, 미술사학자, 갤러리, 미술품 경매 회사, 국공립 미술관, 문화 예술 행정기관, 언론은 물론 금융계와 투자 자본 회사들까지 나서서 묘한 기류에 휩싸인 채 함께 들쭉날쭉해 가 사이다. 이런 상황을 되짚어볼 때 최근의 단색화 열풍을 비단 한국 추상미술의 미학적 가치를 두고 서구가 뒤늦게 보내는 순진무구한 찬사로만 보기는 어렵다. 또 순수 미술(fine art)과 고급 예술(high art)의 미학적 입각해 한 가지 안료로 그린 그림이 지닌, 아름다운 형상과 묘사적 내용 대신 비가시적 미와 철학적 가치를 음미한다는 엘리트 예술 애호가들의 취미만도 아니다.

심정적 동조가 아니라 분석적 접근을 해야 할 때
한국 단색화의 국제 미술계 부상은 엄정한 아트 비즈니스 세계의 논리를 빼놓고는 파악할 수 없다. 단색화의 인기는 파리 페로랑 갤러리나 뉴욕 타나킨 갤러리, 블룸 & 포 갤러리 같은 유럽과 북미의 화랑들, 아트 바젤 같은 아트 페어, 홍콩 크리스티 같은 최대 경매사, 그리고 국제갤러리나 PKM 갤러리 같은 국내 굴지의 화랑을 통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물론 단색화 열풍이 미술 시장의 상업적 전략으로 조성되었다거나 그 예술의 미학적 평가가 비즈니스로 왜곡됐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동시에 2000년대 초반까지 점차 한국 현대미술의 주요 무대에서 희미해지던 단색화를 글과 전시를 통해 재생시킨 비평가, 미술사학자, 전시 기획자의 노고를 무시하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요 근래 단색화의 국내외적 흥행을 우연의 일치나 뒤늦게 날아든 행운, 오로지 학술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성과, 아시아 미술을 향한 이해타산 없는 글로벌 미술계의 짝사랑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 옛비슷하게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예컨대 한국의 단색화 작품이 정말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거 아니라거나 단색화에는 서구의 거창하고 과시적인 미술에는 없는 동양의 담백함과 자연미가 있지 같은 소박한 해석 말이다. 혹은 '2015년 11월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박서보 작가의 1975년 작품이 10억원 넘는 가격에 낙찰됐는데, 그게 다 40여 년간 묻혀 있던 작품의 진가를 이제야 사람들이 알아봐서'라는 식으로, 그런 심정적 동조로 큰일이나 나겠는가마는.

단색화의 상대적 힘
"실제로 단색화 작품을 보면 '이게 왜?'라는 반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한 공영방송사 기사는 해외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단색화를 보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단색화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는 그 예술성을 계감

하기 힘들다는 뜻. 또 "그것이 왜 해외에서 그리 비싸게 팔리는지, 왜 한국 미술의 블루칩이 된 건지,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했다. 사실 이 기자 말고도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초고가 작품 판매로 뉴스를 장식한 단색화라는 그림에 이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반응을 보이며 고개를 가우뚱할 것이다. 단색화가 평가절하되던 시기에 조금은 냉소적인 의미로 '백지 그림'이라 불렀던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추상화화 작품은 무미진조해 보이기 때문이다. 볼거리도 별로 없고 만든 품새나 기교도 예술적으로 그리 탁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니, 게다가 미술 시장에서 놀라운 가격에 팔려나가고 일부는 품귀 현상까지 빚어진다니 호기심이 날로 커질 것이다. 반면 우리 자신을 단색화 시장의 구성원이 아니라 단색화 향유의 의미 생산자로 옮겨보면 앞서 기자의 "이게 왜?"라는 질문에 다른 답을 제시할 수 있다. 단색화가 서구의 현대미술과 연결되는 지점과 동시에 그와 예술적으로 차별화하는 지점 말이다. 우선 이제는 많이들 알겠지만 단색화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1910~1950년대에 유행했던 '모노크롬 회화(monochrome painting)' 또는 '색면 회화(color-field painting)', 그리고 1960년대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자주 비교된다. 그만큼 눈으로 보기에 유사한 면이 있다. 색채를 단순하게 쓰고, 형상을 묘사하는 대신 점, 선, 면, 컬러, 구조 같은 조형의 기본 요소를 작품의 최소 형식이자 내용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현대 회화의 조형적 탐구, 특히 팝아트나 민중미술처럼 대중문화 또는 현실의 삶과 직접 얽히지 않고 회화 내부의 실험을 고수했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박서보, 이우환을 비롯해 현재 단색화 그룹으로 분류되는 여러 원로 작가들은 서구 추상회화와 자신들의 미술은 태생적으로 다르고, 미학적 결 또한 매우 독자적이라고 강조한다. 가령 형이상학적 논리보다는 자연 친화적 정신, 미술사의 이즘(ism)보다는 개인의 내면 탐구, 미학 이념의 성취·달성보다는 마음 비움과 정신 수양 등이라는 차원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역설해 온 것이다.

맥락 있게, 의미를 갖고
여기서 국제 미술의 지형화 안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단색화의 전략이 보인다. 이는 예술의 상대성 가치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이때 가치란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게 아니다. 오히려 비교와 차별화를 통해 만드는 것이고, 상대적 의미의 관계 속에서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세계의 지역들이 수평적으로 공존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자본을 교환하는 글로벌 시대, 한국의 단색화가 국제 미술 시장에서 주목받은 배경도 거기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색화가 미술품 경매장의 반짝 아이템으로 떴다 지는 것을 막으려면 그 상대성의 가치를 맥락 있게 설득력 있게 장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하반기, 국제 미술계에서 단색화의 흥행 조짐이 뚜렷해질 즈음 국내 미술 전문가들 사이에서 단색화에 관한 심도 깊고 풍성한 이론적 접근, 비평과 담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현재까지 결과를 볼 때 상업 회랑이 주재하는 국내의 단색화 전시는 매우 빈번히, 그리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장소에서 규모 있게 열리고 있다. 또 김태호, 김용의 등 소위 단색화 2세대 혹은 '포스트 단색화'라 불리는 중견 작가들이 단색화 열풍의 새로운 수혜지이자 확장 버전으로 등장하면서 그 세력이 점차 넓고 여러 갈래로 확대되는 추세다. 각종 아트 페어와 옥션에서의 판매도 꾸준히 호황을 누리는 모양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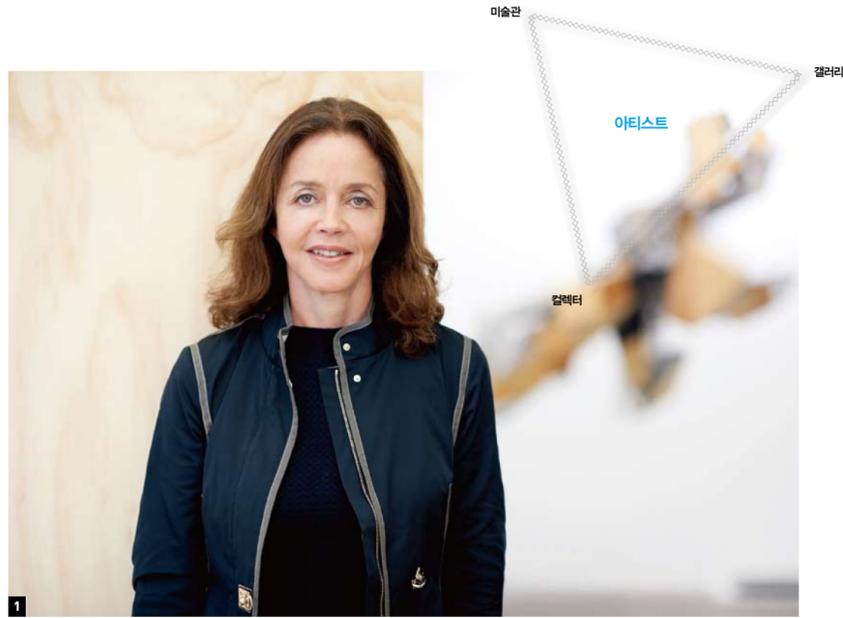
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여전히 잘된 비평은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고, 단색화 경향의 개별 작품에 대한 미학적·미술사적 가치에 대한 분석적 접근조차 일천한 실정이다. 담론으로 정교하고 학술적으로 진지한 비평과 분석만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저 좋다'거나 '세계 미술 시장을 흔들었다'거나 '단색화발 K-아트 폭격' 같은 일차원적 논평, 선정적 언어를 넘어서는 단계를 예기다. 여러 지역과 계층과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기는 사람들이 미술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스스로가 새로운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이야기가 넘쳐흘러야 바람직한 것이다. 단색화 열풍이 불기 시작한 이후, 정말로 필요했고 여전히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 무던히 애써야 하는 건 바로 그런 상대적 가치들의 생산이다. 더 붙여 그렇게 생산된 가치와 의미가 맥락 있게 퍼져나가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 그 기대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단색화 이후의 경로
서구 미술 전문가에게 단색화 작가 중 국제 미술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한국 추상미술을 상징하는 아티스트를 딱 한 명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이우환을 지목할 것이다. 그는 일본의 전위미술 운동인 모노하(ものま)를 비평하며 두각을 나타내 그곳 미술계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미술가임에도 어느 문인 못지않은 뛰어난 글 솜씨로 자신의 작품에 '점으로부터' 같은 시적인 제목을 붙이고 <만남을 찾아서>, <여백의 예술> 등 예술서를 내놓으며 국내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원로에 접어든 2000년대만 해도 2011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회고전, 2014년 파리 베르사유 궁 초대전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경력이 될 만한 국제전을 이어왔다. 이런 이력과 내공이 있었기에 이우환이 서구 미술계에서 단색화 열풍을 이끌어낸 단초가 된 인물이자 대표 작가로 공인됐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경찰이 이우환의 1970년대 단색화라며 미술 시장에서 유통된 13점을 위조범에 의한 위작이라고 판정했지만, 정작 작가는 "모두 진짜"라며 진실 공방까지 벌인 사건은 작가 개인만이 아니라 한국 미술계의 큰 추문이자 오점 이 되고 있다. 이 위작 사건의 밑바탕에는 단색화가 미술 시장의 호재로 등장하면서 미술의 순수성은 웃기는 얘기가 되고, 돈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우글거리게 된 이바닥의 동물성이 깔려 있다. 결국 돈이 문제다. 도박판이나 투기판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작동하는 거래, 탐욕적 이윤 추구가 단색화 화가들이 말하는 자연미, 비움과 지움의 미학이라는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정동으로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짝사랑해온 상대방이 불현듯 잘해줄 때 느끼는 미심쩍고 자신 없는 마음처럼, 처음에 이곳 미술인들은 한국의 단색화를 향해 유럽과 미국에서 보내오는 러브콜을 반신반의했다. 그리고는 "단색화를 정말 잘 알까?", "도대체 단색화의 어디가 흥미를 끈 것일까?", "단색화의 매력을 어떻게 어떻게 저들의 관심이 일시적인 데서 끝나지 않을까?", "잘 팔기 위해서 미술 시장만이 아니라 한국의 미술 비평, 한국의 미술사, 나아가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지?" 같은 물음에 다들 달아올랐다. 예컨대 예상치도 않게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비롯한 K-팝이 전 세계 남녀노소를 열광시키자 어리둥절하며 진의를 의심했던 것처럼 한국 미술계는 단색화 열풍 앞에서 흔들렸다. 그리고 서구의 단색화 애호가 잠깐 스치는 바람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 단색화 열풍 이후의 과제가 현재의 불씨를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한 작가와 작품으로 번지게 하는 것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비평도 담론도 정치 상태도, 논란과 불안감은 진행형이다. 맥락 없이, 글 **강수미**(미학·미술 비평,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High art
Fine art
Color-field Painting
Monochrome Painting
Minimalism

세계 속의 한국 미술을 반추하다

세계 미술의 중심, 뉴욕에서도 빛나는 존재인 리먼 머핀 갤러리의 레이철 리먼(Rachel Lehmann) 대표가 한국 미술을 '편애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3년 이불 작가 개인전으로 리먼 머핀 홍콩 갤러리의 개관을 알렸으며, 지난 3월 아트 바젤 홍콩에서도 이불과 서도호 작가의 작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 현대미술에 애정이 깊은 레이철 대표에게 우리나라 미술계의 현주소와 그가 기대하는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는다는 진리를 강조했다. 2008년 무렵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렸을 때, 미술 시장은 힘들었지만 작가들의 작품은 여전히 인기가 높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렇다면 어떤 작품이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역사적 토대에서 창조해 낸 현대적 작품 중, 미래까지 그 중요성이 전달될 만한 작품에 눈이 가죠. 작품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성도 중요하고, 작가의 메시지가 호기심을 자극하되 깊이 들여다봐도 한결같이 흥미로워야 해요. 30년 뒤에도 여전히 관심이 갈 만한 메시지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는 또 복잡다단한 요즘에는 한 가지 장르보다는 회화, 비디오, 설치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는 역량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미술관, 갤러리, 컬렉터의 유기적인 삼각 구조

이런 맥락에서 레이철 대표는 한국 미술이 ‘최고 수준’이라고 격찬한다. 다만 한국 미술계는 생태계의 중추인 미술관과의 킷넥션이 약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갤러리, 미술관, 컬렉터의 유기적인 삼각 구조가 아티스트를 든든하게 후원해야만 미술계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한국은 특히 미술관의 후원이 부족합니다. 미술관은 가장 신뢰를 주는 존재예요. 체계적인 전시 프로그램으로 컬렉터에게 믿음을 주고, 대중에게는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먼 머핀 갤러리는 미술관 전시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작가와 더불어 성장하려고 노력한다. 미술관과 컬렉터가 아티스트를 적극 후원하고, 갤러리는 미술관 전시를 도와 아티스트를 한층 성장시켜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갤러리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긴 하지만, 이런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원래 홍콩에 갤러리를 열기 전에 서울에 갤러리를 내고 싶어 탐색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하지만 영어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미뤘다. “내년에는 김기린과 서세옥 화백의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현재 뉴욕 첼시와 크리스티 스트리트에 2개의 갤러리, 홍콩에 1개의 갤러리를 운영하는 리먼 머핀은 2018년 뉴욕에 네 번째 갤러리를 열 예정이다. “서울에 있는 편집매장 분타입의 건축가이기도 한 피터 마리노가 설계를 맡았어요. 리먼 머핀 4호점이 어떤 새로운 특징을 띠게 될지는 미정이에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좀 더 고민해보려고요.” 그가 이끄는 네 번째 갤러리의 개관전 주인공이 누구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글 이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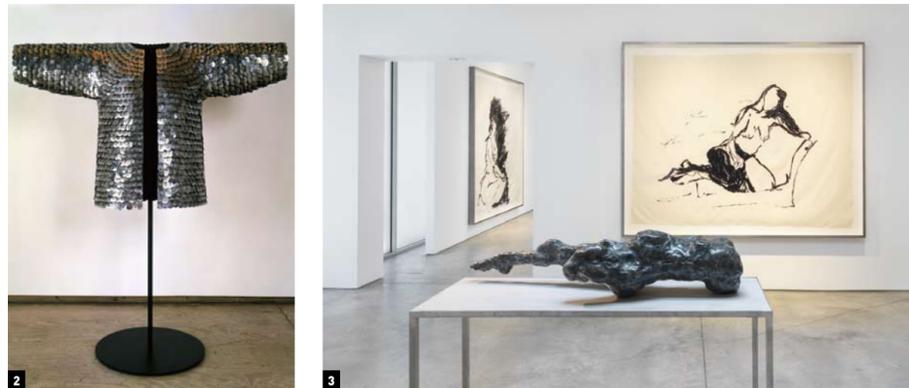
1996년 이스트 햄프턴에서 뉴욕으로 갤러리를 이전하며 본격적인 갤러리스트의 행보를 선언한 레이철 리먼 대표. 스타 작가보다 신진 작가에 대한 관심이 컸고, 서도호의 대학 졸업 전시를 주목해야 한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처음 한국 작가에게 관심을 가졌다. 레이철 대표는 서도호의 아틀리에와 한국 집을 방문했고, 2000년 리먼 머핀 갤러리(Lehmann Maupin Gallery) 뉴욕에서 개인전을 제안하며 인연을 확장했다. 2001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 대표 작가로 참여한 서도호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리먼 머핀 갤러리를 대표하는 작가로 우뚝 서게 됐다. “리먼 머핀 갤러리 홍콩의 개관전을 이불 작가 전시로 정한 건 뉴욕 갤러리 철학의 연장입니다. 새로운 아시아 미술과 하향 평가되는 여성 작가에 대한 오랜 관심이 이불 작가의 개관전으로 발현된 거죠.” 서도호와 이불 작가에서 시작된 한국 미술에 대한 그의 관심은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이후환, 단색화 작가 등과 같은 한국의 미니멀리즘에도 조예가 깊은데, 여러 작가의 작품을 접하면서 자연스레 또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 궁금해져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이제 리먼 머핀이 창립 20주년을 넘어설 만큼 성장했고, 서도호와 이불 작가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오다 보니 그들의 이전 세대는 어떤 작품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이 지긋한 작가들의 아틀리에를 하나둘 방문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역사와 현대미술은 서구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회화를 전공한 서도호의 추상 작품이 한국 역사와 깊이 관련돼 있음을 발견했고, 김기린의 1960년대 모노크롬 작품에서 이불과의 연결 고리를 찾았어요. 서세옥의 작품 세계가 아들인 서도호에게 영향을 준 건 당연하니, 그의 작품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고요.”

포스트 단색화를 찾아 헤맬 필요는 없다

이외에도 아직까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가 조만간 리먼 머핀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 한국 작가가 여러 명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단색화의 인기와 큰 관련은 없다고 했다.

“갤러리스트로서 항상 강렬함에 매혹돼왔습니다. 단색화는 시각적 강렬함과는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사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국에서 포스트 단색화가 될 만한 대안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한국인들은 단색화 이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작업을 하는 미술가가 많은데 왜 그들을 굳이 하나의 사조에 묶어야 하나요? 요제프 보이스와 길버트 & 조지처럼 혼자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미술가들이 있잖아요.” 물론 단색화는 개개인의 작품도 좋지만 그룹으로 선보이다 보니 더욱 힘을 갖게 된 건 사실이다. 그는 단색화가 서양의 미니멀리즘, 추상화와 연결성을 갖춰 이해하기 쉽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단색화라기보다는 한국의 추상미술 자체에 큰 애정을 갖고 있고, 이런 호기심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됐다. 그는 단색화의 성공에 대해 맹목적으로 포스트 단색화를 추구한다면 그와 똑같은 성공은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미술 시장이 야부침을 겪기 마련이지만 좋은 작품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

1 아시아와 관심사가 폭넓은 레이철 리먼 대표는 한국 현대 미술을 편애한다. 2 2016년 아트 바젤 홍콩에 출품된 서도호의 작품. 3 리먼 머핀 뉴욕 갤러리에서 열린 트래시 에반스의 전시.



현대미술을 둘러싼 ‘국가’ 컬렉션 경쟁

필자는 오래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현대미술 컬렉션의 필요성과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피력해왔다.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에 미술품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못하다면 심각한 문화재 기근에 당면할 것이다. 그렇다고 자국의 문화재만 수집해서도 안 된다. 최소한 아시아의 대표적 미술품을 갖춰놓아야 추후에 아시아 차원에서 문화에 대한 비전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권력에 편승해 이권을 챙기기가 좋은 단계적, 또는 홍보성이 강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게 함으로써 혈세를 유용했다. 그런 와중에 정작 국가의 장기적인 문화적 체력을 담당해야 할 분야에는 적은 예산이 배정돼왔다. 한국 문화의 번영 출판, 예술 꿈나무의 성장 지원, 지역 문화 시설의 확충 등이 그런 것들인데, 그중에서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근현대미술 공공 컬렉션이다. 한 해에 수백만에서 천만에 이르는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간다. 이들이 많은 돈을 쓰며 여행하는 행선지는 유럽과 미국이다. 한국인들이 현지에 가서 하는 관광의 상당 부분은 미술관 관람, 자연 명소 방문, 식도락, 쇼핑 등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술품 컬렉션이다.

현대미술,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문화사업의 핵

대영박물관 같은 고고학 중심의 박물관도 있지만, 사실 이런 곳조차 대부분의 전시물은 미술품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난 1백50년 동안 이뤄진 근현대미술은 우리 시대의 문화를 서구 중심으로 설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몇 세기에 걸쳐 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로 큰 수익을 창출하는 성공적 비즈니스로 검증된 것이다. 각국 정부는 점점 더 많은 현대미술품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전시할 장소를 건립하고 있다. 프랑스의 인상파 미술관인 오르세 미술관이나 로댕, 파카소 미술관을 비롯한 많은 근대미술 전문 미술관이 정부 지원으로 개축됐을 뿐 아니라 풍피두, 팔레 드도교, 파리 시립미술관, 메즈 풍피두 등을 위시해 소위 FRAC이라고 불리는 지방 정부 컬렉션을 포함한 국공립 미술관이 수많은 관광객을 동원하고 있다. 루이 비통 재단미술관, 까르띠에 현대미술관 등과 같은 엄청난 개인 컬렉션을 기반으로 한 미술관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미술 콘텐츠들이 관광객에게서 벌어들이는 돈은 무려 수백조원에 이른다.

해마다 미술, 건축 비엔날레가 열리는 베니스에서도 페기 구겐하임과 프라다 컬렉션, 그리고 구찌와 크리스티를 소유한 프랑스와 피노의 컬렉션을 전시하는 팔라초 그라시, 폰타 델라 도가나 등 많은 개인 컬렉션이 엄청난 규모로 미술계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단 5일 동안 2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아트 페어를 위시해 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칸넌션을 운영하는 작은 도시 바젤을 유럽 문화의 거점 도시로 만든 데는 바이엘러 재단의 미술품 컬렉션과 미술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의 뉴욕 현대미술관(MoMA)과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 MoMA), 로스 앤젤레스 현대미술관(MoCA), 구겐하임, 게티 미술관 등 미술관들은 모두 20세기 초 개인 컬렉션에서 출발해 공공 미술관으로 거듭난 것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서구 도시에 가면 우선 미술관부터 둘러보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민간 컬렉션으로서의 대표적으로 리움미술관과 간송미술관이 있다. 이 두 컬렉션 덕분에 한국 문화는 간신히 미술품 콘텐츠의 기근을 그나마 면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는 6천 점에 넘는 미술품이 소장돼 있지만 이 중 현대미술사의 맥락에 비해 평가할 만한 작품은 10%가 채 안 된다고 본다. 연 30억원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지만, 국가적 컬렉션 구축에 대한 전략이나 방향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주로 공공기관에 작품을 ‘미관용’으로 대관하는 미술은 행의 컬렉션 수준에 대해서는 미술계에서는 거의 논의나 관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외에 최근 들어 컬렉션을



갖추기 시작한 곳으로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대구미술관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역시 연 10억원대의 미미한 미술품 컬렉션을 하고 있고, 그나마 대표작이 아닌 추천작을 시장가격을 크게 밀도는 도매가로 겨우 구매하고 있다. 이처럼 ‘빈곤한’ 공공 컬렉션은 당장은 돈을 아끼는 듯 여겨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품 가격이 오르거나 대표작을 찾기가 어려워져 기회비용을 날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열악한 세제나 여론의 부정적 인식으로 민간 컬렉션이 공공 컬렉션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치 않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공공 컬렉션의 가능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

홍콩과 중국, 싱가포르의 현대미술 컬렉션 열풍

현재 아시아에는 컬렉션 열풍이 불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등 화교 자본이 주축이 되어 각 도시에 메가 미술관을 짓고 있다. 2019년에 개관하는 홍콩의 M+는 3천5백억원대의 아시아 현대미술 컬렉션을 이미 6~7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이 미술관이 문을 열면 아시아 관광객들은 단지 이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라도 홍콩을 방문할 것이다. 안 그래도 콘텐츠에 목말라하는 관광객에게는 아트 바젤 홍콩과 크리스티, 소더비 경매, 그리고 세계적 갤러리들의 분관과 면세 혜택까지 결집된 홍콩이 아시아의 뉴욕처럼 여겨질 것이다. 상하이에는 이미 10여 개에 이르는 민간 주도의 메

가 미술관이 건립되고 있고, 싱가포르 역시 새로운 관광, 미술 시장의 허브가 되기 위해 아시아를 대상으로 공공 컬렉션과 페어를 기획하고 있다. 여기에 대만과 인도네시아의 화교 자본까지 가세해 아시아 전역의 현대미술 대표작을 수집하고 있다. 미술품은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한국에서는 다른 곳에는 예산을 펴뭇 써도 미술품에는 인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빠르게 순환하는 콘텐츠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전문가들이 발품을 팔아 서서히 구축해야 하는 미술품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나마 최선의 시기일 수 있다. 지금까지 부정 축재로 사라진 문화 예산 가운데 일부를 사용해 2백억씩 5년 동안 현대미술 국가 컬렉션을 구축하더라도 아시아에서 홍콩 다음가는 공공 컬렉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류로 높아진 아시아인들의 관심에 대해 그들의 문화를 한 군데에서 보여주는 아시아 문화 허브로 거듭나는 것으로 보답할 수 있을 테고 말이다. 그렇게 창조되는 ‘국가 컬렉션’은 국립현대미술관뿐만 아니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위시한 전국의 문화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아시아 각국으로 대어하면서 아시아 문화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현대미술 컬렉션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고급 문화 영역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위상과 직결되는 일이다. **글 유인상**(계원대학교 교수 · 전시 기획자)

Lucy + Jorge Orta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아티스트가 있다. 그중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삶으로서의 예술'을 외치면서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었던 요제프 보이스 같은 개념 미술가도 있다. 캔버스가 아니라 '사회'를 조각한다고 주장했던 그의 후에 중 환경과 사회적 변혁의 메시지를 예술로 전달하는 데 있어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여온 아티스트 듀오 루시 + 호르헤 오르타 듀오와 창업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주관 있는 아트 경영을 펼치는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뜻깊은 파트너십을 소개한다.



1

요즘 아트가 '꽃힌' 기업이나 브랜드가 눈에 띄게 늘었다. 아트가 대체적인 한가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그런데 아트를 매개체로 브랜드만 부각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든지 화려한 눈요기에 치중한다든지, 아니면 인신 종개 후원을 하긴 하는데 진정한 철학이나 맥락 있는 고민은커녕 그저 꽤 영리하다 싶은 수준의 전략조차 엿보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결국 투자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수준 높은 아트 경영, 또는 아트 협업(collaboration)에는 단단한 사회·문화적 토대와 깊은 사유, 창의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브랜드가 지켜온 정체성과 추구해온 이미지의 본질에 맞는 전시 콘텐츠와 공간, 그리고 서로의 신념을 공유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찾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차원에서 양자가 상당히 성공적인 닻은꼴이라고 느낀 사례가 아티스트 듀오 루시+호르헤 오르타(Lucy+Jorge Orta)와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만남이다. 명품 브랜드와 다분히 비상업적인 예술가의 조합임에도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비롯한 환경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실천적 자세를 공동분모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은근히 어울린다.

자연, 인간에 대한 사랑과 경의를 예술로 풀어내다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영역에서 세계적 명성을 떨쳐온 루시 오르타, 호르헤 오르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부부 아티스트다. 영국 출신으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쿠튀르 브랜드에서 일하던 루시가 1990년대 초 아르헨티나의 독재 정권 아래에서 사회·정치적 맥락의 현대미술을 해오던 호르헤를 만나 뜻을 함께했고, 이후 둘은 지금까지 파리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을 지향하는 만큼 주제마다 시리즈 작업을 주로 하는 이들의 첫 공동작은 '레퓨지 웨어(Refugee Wear)' 시리즈. 웃인 동시에 이동 가능한 거주지를 연상시키는, 그래서 건축과 의복의 기능이 물리적, 사회적, 상징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입을 수 있는 조각이다.

오르타 듀오는 자연과 환경, 식량 문제를 예술에 접목하는 작업도 꾸준히 해왔는데, 그 물꼬를 튼 것이 1996년. 당시 자유무역으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됨에 따른 타격을 우려해 농림업자들이 1996년 유럽연합(EU)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는데, 파리 거리마다 과일, 채소 같은 작물을 쏟아부리는 광경을 보고는 안타까움을 느낀 이들은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깨끗이 씻은 다음 만찬을 차렸다. 그리고 이듬해 식품을 둘러싼 윤리 의식을 주제로 한 전시 <All in One Basket>을 열었다. 1999년에는 식품 낭비는 물론 식량 분배의 불평등 문제까지 다룬 <HortiRecycling Enterprise> 전시를 개최했고, 2000년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특정한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70x7 The Meal'라는, 일종의 의식(ritual)이라 할 수 있는 행위예술을 펼쳤다. 주거, 난민, 식량, 환경 등 인간의 사회적 생존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를 대생, 조각, 사진,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의 예술로 풀어내며 더 나은 세상을 다 같이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널리 알려온 이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UN에서 친환경 분야에서 공헌한 예술가에 수여하는 '그린 리프 어워드(Green Leaf Award)'를 받기도 했다.

제냐트(ZegnArt)와 공유하는 생태계 중심의 가치

자연환경과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생각해 아트 후원을 추구해온 기업이라는 점에서 에르메네질도 제냐와 오르타 듀오의 만남은 '필연'인 듯하다. 이탈리아 비엘라 지역에 뿌리를 둔 제냐 가문은 고흥이자 자사 소유의 방직 공장이 자리한 마을 트리베로(Trivero)에 병원, 학교, 스포츠 시설 등을 지으면서 지역 발전과 사회복지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불모지나 다름없던 땅을 개발해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켰다. 또 제냐의 아트 프로젝트인 제냐트(ZegnArt)를 이끄는 창업자의 딸 안나 제냐는 이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보존하고자 100km가 넘는 방대한 면적의 친환경 생태 공원인 '오아시 제냐(Oasi Zegna)'를 만들었다. 맑은 날이면 온갖 종류의 나무가 꽃, 희귀 동물까지 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오르타 듀오는 제냐트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탈리아 최초의 공공 현대미술관인 로마 국립현대미술관(MAXXI)과 협업해 '로마 이야기에 참여하면서 제냐와 인연을 맺게 됐고, 나중에는 트리베로에 머물면서 생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지구 식량 공급, 생명의 에너지를 주제로 내건 2015 밀라노 엑스포 기간에 열린 제냐트 행사 '자연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트리베로에서 발견한 희귀종 딱정벌레 카라부스로 가면과 수트를 제작해 음악과 결합인 아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저희에게는 놀랍도록 잘 보존된 자연환경, 나무 심기(제냐 가문은 인근에 50만 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같은 마을 재생 작업이 흥미로웠어요. 제냐 가문은 지역 커뮤니티와 후손을 위해 소중한 사회·문화적 유산을 빚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행보는 그들이 정신적 지주로 삼는 현대미술의 거장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가 부르짖었던 '지구상에 더 이상 나무를 심을 곳이 없어질 때까지 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신념을 상기시킨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작업을 '사회를 조각하는 것, 또는 확장된 개념의 예술'이라고 불렀던 요제프 보이스는 독일 녹색당 당원으로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는데, 당시 7천그루의 상수리 나무' 프로젝트 같은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이것이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예술 작품이었다. 글 고정연



4



6



2

1 밀라노 엑스포가 개막된 2015년 5월 초 밀라노 제냐 사옥에서 열린 아트 행사 '자연 이야기'(Fabulae Naturae)에서 루시 + 호르헤 오르타(Lucy + Jorge Orta)는 '야생동물의 부재에 대한 교향곡을 배경음악으로 아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SY KO
2 Refugee Wear Intervention(1998, London East End), 사진 John Akehurst.
3 밀라노에 위치한 에르메네질도 제냐 본사 건물에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는 루시와 호르헤 오르타 커플, 사진 제공 제냐. 4 사회적 유대의 대안을 제시하는 '인체 조각' 퍼포먼스 'Nexus Architecture x 50 - Nexus Type Operation'(2001), 사진 Peter Guenzel. 5 자연보호 지역으로 휴머니티의 이상향으로 여기는 남극 프로젝트 'Antarctic Village - No Borders'(2007), 사진 Thierry Bal. 6 'Spirits of the Huveaune - la Fée du pont - Ubelka'(2012), Courtesy of the Artists and Association Rives et Cultures. 7 'Cloud | Meteoros'(2013), 사진 Sam Lane. © 2, 4, 5, 6번 사진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5



3



7

누구보다 독창적인 현대미술의 수호자

럭셔리 패션 하우스의 현대미술 후원은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을 진양지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미술의 정수를 담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전위적이라 할 만큼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미술가들과 창조적 즐거움을 빚어온 수준 높은 협업, 참신한 신진 작가 후원 활동을 30년 넘게 해오면서 독보적인 자취를 남겨왔기 때문이다. 빼어난 전시 콘텐츠와 아름다운 건축물의 조화가 돋보이는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은 예술을 즐기는 대중은 물론이고 아티스트들이 파리에 가면 즐겨 찾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다.



1 건축가 장 누벨이 디자인한 유리 건축물은 파리의 낮과 밤을 투영하는 명소다.



2 일본 사진가 히로시 사가모토가 동물을 촬영한 작품 사진 등이 걸린 전시장.



3 미국 사진가 로니 홈의 핑크 톤스(Pink Tons) 작품. Photo by Roni Horn, Courtesy of OLI Architecture.

1984년, 까르띠에 인터내셔널의 대표 알랭 도미니크 페랭(Alain Dominique Perrin)은 조카가 세자르(Cesar)의 제인으로 우이하고도 진취적인 도전을 시작했다. 현대미술을 후원하는 프랑스 최초의 기업 재단으로 까르띠에 현대 미술재단(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을 설립한 것이다. 예술가들의 개인전과 기획 전시를 개최할 뿐 아니라 재능 있는 동시대 작가에게 작품을 의뢰해 다채롭고 풍부한 컬렉션을 소장하게 됐다.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이 디자인한 유리 건축물로 이전한 뒤 전시는 한층 더 활력을 띠었다. 1994년 파리 중심부 라스파유(Raspail) 거리에 선보인 투명한 건축물은 파리의 낮과 밤을 투영하며 명소로 떠올랐다. 유리 벽은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전시회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고, 해와 달과 노을이 변화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로타 바움가르텐(Lothar Baumgarten)이 설계한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정원 역시 사계절 내내 피는 꽃과 나무, 과일과 허브로 방문객을 매혹한다.

작품을 의뢰하고 신진 작가를 후원하는 방식

에르베 샹데(Hervé Chandès) 관장과 그라치아 쿠아론니(Grazia Quaroni) 큐레이터는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의 심도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가들이 자유로운 감성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예술 작품 의뢰와 신진 작가에게 전시 기회를 주는 일은 이들의 가장 큰 보람이자 업적이다. 작품 하나 혹은 전시회 전체를 구성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과 미술가는 단순한 후원 관계를 넘어 창의적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기에 된다. 마르크 쿠투리에(Marc Couturier), 장-미셸 오토나엘(Jean-Michel Othoniel), 차이 구어차잉 & 미야자마 다쓰오(Cai Guo-Qiang and Miyajima Tatsuo) 같은 작가들이 그렇게 기념비적인 작업을 완성했다. 미술뿐 아니라 영화와 사진, 공연, 디자인 등으로도 영역이 다채롭게 확장되고 있으며, 영화감독 데이비드 린치, 디자이너 일라스트로 멘디니에게도 컬렉션을 의뢰한 바 있다.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은 검증되지 않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최초의 전시를 열어주기도 하고, 유럽에 알려지지 않은 변방의 작가에게 기회를 주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1994년에는 피에리크 소린(Pierrick Sorin)에게 비디오 설치물을 의뢰했는데, 그는 이후 국제적인 비디오 아티스트가 됐다. 1995년에는 디자이너 마크 뉴슨(Marc Newson)의 설치 작업을 전시했고, 그는 이제 '스타'로 불린다. 사진가 프란체스카 우드먼(Francesca Woodman) 등의 전시를 열었고, 일본의 사진작가 아라키 노부오시, 리코 가와우치를 소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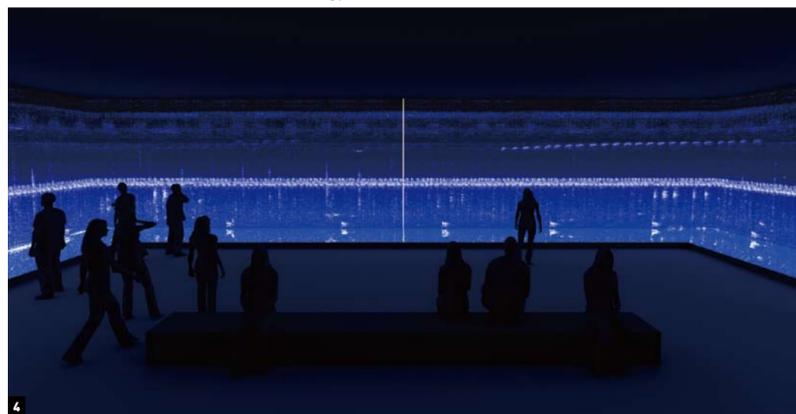
위대한 시청각 전시 <위대한 동물 오케스트라>

다채로운 장트를 오가는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이 최근 선보이고 있는 전시는 <위대한 동물 오케스트라(The Great Animal Orchestra)>. 미국의 음악가이자 생물 음향학자인 베니 크라우스(Bernie Krause)에게 영감을 받

은 전시인데, 세계 각국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모아 '동물의 왕국'에 대한 시찰적인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베니 크라우스는 40년 동안 약 1만5천 종의 육지와 바다의 자연 서식지에서 5천 시간에 달하는 소리를 수집했다. 동물 소리 녹음에 빠지기 전에는 영화 <악마의 씨>, <자옥의 목사복> 등의 시온드트래에 참여했던 음악가이자 음향 전문가인 그가 이제 우리에게 아생동물의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귀 기울여보라고 권하는 것이다. 중국 미술가 차이 구어차잉은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18m 길이의 드로잉을 선보였다. 화약을 사용한 이 그림은 다양한 아생동물들이 평화롭게 우물가에 모여 있는 순간을 묘사했다. 인간의 이기심이 만든 재료인 화약으로 동물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이 흥미로운 면서도 의미심장하다. 일본의 사진가 히로시 사가모토가 촬영한 동물 비제들의 흑백사진은 연속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브라질 미술가 아드리아나 비라제오(Adriana Varejão)는 아마존의 새들을 그린 타일 벽을 제작했는데, 이는 정원과 건물, 전시 공간을 연결한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베니 크라우스의 청각 자료를 시각적으로 해석한 영국 아티스

트 그룹 유나이티드 비주얼 아티스트(UVA)의 3D 설치물이다. 베니 크라우스가 녹음한 소리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빛의 조각으로 변형시키고, 이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동물 소리의 조화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각각의 종은 자신이 선호하는 소리의 음역대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이올린, 목관악기, 트럼펫, 파카시 악기들이 오케스트라 속에서 해당 악기의 소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미국, 브라질,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상해에서 녹음된 시온드 스케이트가 관람객의 눈과 귀를 황홀하게 한다. 아름다운 정원은 아그네스 바르다(Agnès Varda)의 애완 고양이 조구구를 기리는 작품 '조구구의 무덤(Le Tombeau de Zgougou)'을 설치해 하늘나라로 떠난 모든 애완동물의 영혼을 위로한다. 이처럼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의 전시는 럭셔리 패션 하우스로서의 컬렉션을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대미술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017년에는 서울에서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의 독창적인 전시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문의 fondation.cartier.com 글 이소영

1 건축가 장 누벨이 디자인한 유리 건축물은 파리의 낮과 밤을 투영하는 명소다. 2 일본 사진가 히로시 사가모토가 동물을 촬영한 작품 사진 등이 걸린 전시장. ©Thomas Salva 3 마나부 미야자키의 작품물. The Great Animal Orchestra_Manabu Miyazaki_Photo by Thomas Salva - Lumento 4 베니 크라우스가 수집한 동물 소리에 영감을 받은 영국 아티스트 그룹 UVA의 3D 설치 작품. ©Luc Boegly



4 베니 크라우스가 수집한 동물 소리에 영감을 받은 영국 아티스트 그룹 UVA의 3D 설치 작품. ©Luc Boegly

Art Management



new Tate Modern

미술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어야 한다. 물론 고유의 전통적 기능을 부정하거나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 미술관이 위치한 맥락에 따라 그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런던에 개관한 테이트 모던 신관은 새로운 도시적, 자연적 경관을 만들기 위해 미술관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 미술관은 우리에게 여러 의미로 다가온다. '모나리자와 게르니카' 같은 그림들이 인류의 역사와 사건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며, 전시장에 놓인 마르셀 뒤샹의 변기 작품 '샘'은 미술에 대한 관념과 표현을 새롭게 선언하기도 했다. 또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이미 고유한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중을 유혹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도서관, 아카이브와 결합된 형태의 미술관이 새로운 복합체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술관 내부의 고유한 역할 변화 못지않게 최근 요구되는 미술관의 탁목 중 하나가 바로 도시 경관에서의 '스타일'이다. 단지 집귀한 예술 작품을 쌓아놓고 보관·전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술관의 건축이 그 자체로 예술이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미술관은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회색으로 덮인 삭막한 대도시에 생기를 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야 하는 책무를 짊어지게 됐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전형적인 형태를 버린 미술관 스타일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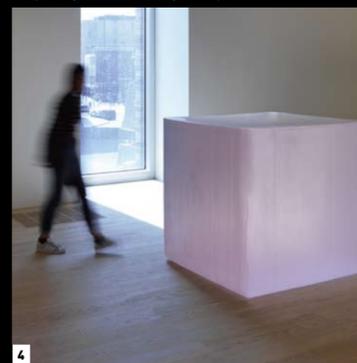
건축 듀오 헤어초크 & 드 뫼롱의 또 다른 명작

2016년 6월 새롭고 문을 연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신관을 보자. 2000년, 근대 산업 유산인 발전소를 재활용해 세운 구관은 아주 네모반듯한 건물이다. 1950년대 지어 근대의 기능주의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이곳은 굽직한 작가와 작품으로 가득하지만, 사실 발전소 건물을 그대로 살린 건물의 외관을 보자면 좀 아쉬운 감이 있었다. 그러나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는 신관 건물을 이런 아쉬움을 싹 날려버린다. 옛 건물과 똑같이 벽돌을 사용했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몸을 비틀고 있는 듯한 형태는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기존 건물과 같은 재료와 색을 사용한 터라 도시경관 차원에서 서로 닮은꼴 형제처럼 느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뉴 테이트 모던은 "나는 달라!"라며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는 모습이다. 또 그냥 콘크리트나 유리라 지은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작은 벽돌이 쌓여 과감하게 비틀어진 형태를 이뤘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동이 또 다르다. 자세히 살펴보면 벽돌을 바짝 붙여 쌓지 않고, 옆으로 빈 공간을 두면서

다공성 면을 쌓았는데, 그 덕분에 높이 64.5m의 10층 건물 규모가 어느 벽돌 건물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테이트를 방문하는 연간 5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신관에 올라 주변 360도로 펼쳐진 템스 강의 스펙타클한 경관을 만난다는 건 전시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흥분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이곳의 신관과 구관을 모두 설계한 건축계의 거물 듀오 헤어초크 & 드 뫼롱(Herzog & de Meuron)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형태와 재료를 결정하는 건축가들이다. 작은 재료의 패턴에서 전체 형태를 추출해내고, 전체 형태와 공명할 수 있는 재료의 섬세한 사용법을 찾아낸다. 그러면서 늘 기존의 맥락을 비틀어버리는 역할상의 설계를 보여준다. 2010년 스위스 비트라 캠퍼스에 들어선 비트라 하우스 역시 단순한 박공집 몇 개가 비틀어진 축선 위로 쌓이면서 새로운 풍경과 공간을 빚어냈다. 단순한 유형을 틀어 쌓는 것만으로 이렇게 흥미로운 작업을 할 수



1, 2 기존 건물과 같은 재료를 사용했지만 비틀어놓은 형태가 전혀 다른 뉴 테이트 모던. ©Tate Photography, All other images ©Iwan Baan



3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신아트 뮤지엄의 아름다운 모습. Photography by Shen Zhonghai, Courtesy of OLI Architecture.

있다는 점이 바로 창의적 접근에서 비롯된 혁신이 아닐까. 최근 헤어초크 & 드 뫼롱이 서울 송은아트스페이스의 설계를 맡았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도시적 문맥을 어떻게 비틀어 놓을지 궁금해진다. 이 밖에 형태나 면의 비틀기를 통해 새로운 조형을 창조한 사례로는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설계한 파리의 루이 비통 미술관이나 중국의 MAD 아키텍츠의 하얼빈 차이나 우드 스크ulpture 뮤지엄(China Wood Sculpture Museum) 등을 꼽을 수 있다.

미술관 건축의 또 다른 흐름

하지만 이런 흐름과는 무관하게 박스 형태의 건축이 안고 있는 본질적 가치와 효율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베니스라 불리는 우젠(Wuzhen)에 세운 무신아트 뮤지엄(Mu Xin Art Museum)이 그 주인공이다. 커다란 상자 5~6개를 다리로 연결해 묶어놓은 듯한 이곳은 중국의 화가이자 철학자인 무신을 기념하는 추모 미술관이다. 설계는 뉴욕, 상하이, 파리에서 사무실을 운영 중인 OLI 건축이 담당했다. 이들은 호수 위에 네모난 건물을 띄워놓음으로써 물과 돌이 드러내는 가벼움과 무거움, 투명과 불투명 등 물질성의 대비를 극대화했다. 관람객은 다리를 건너 호수 위에 떠 있는 듯한 미술관에 진입하는데, 이때 다리는 일상과 무신의 예술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건축 요소로 사용된다. 건축가가 형태를 비틀지 않은 본연의 모습으로 박스 모양을 사용한 이유는 지역의 주민은 자연과 그 위에 터전을 잡은 오랜 촌락이기 때문이다.

네모난 박스 형태가 넘쳐나는 오늘날 대도시의 획일적인 분위기를 비틀어보려는 의도에서 최근의 '비틀기' 전략은 형태적으로 보나 프로그램 측면에서 보나 당분간 지속될 듯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건축의 근본적 가치를 보여주는 평범한 상자로서의 미술관도 다른 방향으로 계속 변모해나갈 것이다. 이들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확인되는 미술관에 대한 새로운 양상이 도시와 자연을 더 풍요롭게 가꿔가지 않을까? 글 한태영(건축가·에이치에이치 아키텍츠 대표)

It Place



Dietrich Klinge *in weidelbach*

과감한 생략과 절제미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감성과 품격. 한 평론가는 자아의 심연을 관조한 듯한 디트리히 클링에의 조각 작품에서 흘러나오는 우아한 기품은 정신적이며, 심지어 종교적이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시대와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폭넓은 스펙트럼과 내적 성찰의 깊이를 지닌 이 걸출한 조각가의 인생과 철학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바이텔바흐의 집을 소개한다. 대구에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뉘른베르크의 보데(Bode) 갤러리 덕분에 이미 그의 작품 세계를 접하는 행운을 누린 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년 5월 중순 대구 인당 뮤지엄에서 열릴 그의 전시를 기억해두면 좋을 듯하다. 예술의 본질과 시대를 초월하는 조각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값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2015년 뉘른베르크의 한 교회에서 보데 갤러리 주최로 열린 디트리히 클링에의 (ET-und-auch) 전시. 사진 Martin Frischauf.

'조각'이라 하면 자주 연상되는 나라인 고대 그리스에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순수예술이라고 부르는 작품 세계를 일컫는 단어가 따로 없었다고 한다. 목공예든 조각이든 시 짓기든, 심지어 구두를 만드는 일이든 그리스어로 '테크네(techné)'의 영역에 포함됐는데, 이 단어는 요즘 같으면 좋은 솜씨가 뒷받침되는 '수공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저명한 미국 철학자 레리 사이너는 설명한다. 단지 단어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순수예술의 범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회화, 조각, 건축, 음악 등이 별도의 범주로 나누어지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리스 조각을 봐도 영혼의 울림을 느끼는 경우가 꽤 많고, 그 이름 모를 조각가를 '예술가'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 작품에는 단지 뛰어난 손재주만 담긴 게 아니라, 본질적 성찰이 깃들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상의 본질을 꿰뚫고자 끝없이 성찰하다

독일 조각가 디트리히 클링에(Dietrich Klinge)는 이런 울림이 있는 유서 깊은 조각 작품이나 오브제를 자긱이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는 걸 좋아한다. 적막 속에서 가만히 응시하고 있노라면 어느새 그 대상은 말을 건넌다고 했다. "누가 만든 건지는 모르지만 의미 있는 건 그 작품 자체예요.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티스트가 누군지 전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 건 그 작품이니까. 그게 본질 아니까요." 그는 오늘날에는 "누구인지가 몹시도 중요해지는 바람에 작가가 '스타'로 떠올라 인기를 얻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작품 값을 비싸게 받으려 하는 현실이 때로는 안타깝다고 했다. 그의 말에 심히 동감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가 '클링에'라는 사실을 알아서 좋았다. 나무의 표면 질감이 드러나 마치 숲의 정령이라도 품은 듯 그의 신비스러운 청동 조각상을 보면 작가명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의심할 여지없이 '클링에'임을 알 수 있다. 그가 담아내는 모티브는 꽤 다양하지만, 구상인데 마치 추상 조각 같은 느낌이 들고 기품과 절제미가 흐르는 동시에 웬지 유쾌하고 기분이 편안해지는, 특유의 조형적 언어와 오라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의 어느 예술가처럼 클링에가 '무명'이나 다름없었다면 우연히 작품을 접했다 하더라도 '작가 미상'이라 그저 그 존재를 못내 궁금해하기만 했을 게 아닌가. 하지만 유럽에서 이미 대가로 여겨지는 그의 존재를 몇 년 전부터 알게 돼 좋았고, 첫눈에도 끌림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팬심과 호기심이 솟았던 덕에 마침내 직접 찾아가 만날 수 있어서 더 좋았다.



1, 4, 5 독일 뉘른베르크 인근의 바이텔바흐(Weidelbach)에 있는 디트리히 클링에의 자택. 사진 디트리히 클링에, SY KO. 2 자택 부지 내에 있는 작업실에서 포즈를 취한 디트리히 클링에. 그의 상징적인 조각 시리즈 중 하나인 '다프네(Daphne)'의 미완성 모델 옆에 서 있다. 사진 SY KO. 3 디트리히 클링에의 작업실. 4 Daphne VIII(2016). 5 Tantalus(1987) 사진 Martin Frischauf. 6 Der Moment(2014). 사진 Martin Frischauf. 7 독일 안스바흐(Ansbach)에서 보데 갤러리 주최로 열린 전시 (Orte). 사진 Martin Frischauf.

목수와 대장장이의 일상을 꾸러기는 철학자

물론 그 여정은 꽤 멀고도 험(?)했다. 그의 자택이자 작업장이 독일 뉘른베르크에 도착해서도 자동차로 2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바이탈바흐(Weidelbach)라는 외딴 마을에 있어서다. 조각가들은 크고 거친 재료를 다루는 일이 많은 데다 조용한 사유의 삶을 추구해서인지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하고 널찍한 공간에서 작업하기를 선호하는 듯하다. 프랑코니언 지방의 색채라는 파스한 노란색 벽, 붉은 지붕,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밭에 놓인 클링에 특유의 커다란 조각 작품들. 내부에는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아니, 외려 너털너털해진 카펫과 낡은 가구를 보노라면 '배근한' 인테리어와는 거리가 멀지만 누가 봐도 아티스트의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는 그림과 조각, 고서, 안목이 느껴지는 소품이 어우러져 있다.

그런데 사실 클링에의 집은 25년 전인 1991년, 페가나 다름없던 건물을 사들여 그가 '회생'시켰다. 그것도 장장 7년이란 시간에 걸쳐 직접 공사를 했다. 심지어 급고가 달린 서랍장이나 책상 같은 가구까지 제작했다. "당시 무너져가는 건물과 땅을 사두기는 했지만 계간 공사를 할 만한 목돈이 없었고, 일하느라 바빠서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 같은 휴일에만 들러 열심히 집을 재건했죠. 은행에서는 젊은 아티스트에게 대출을 잘 해주지 않거든요."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뭐든지 알아서 푼다 만들어내는 습관은 어릴 적부터 지녀온 것이라고 덧붙었다. 클링에의 부모는 1960년대 동독에서 슈투트가르트로 이주해온 터라 아무런 밑천 없이 가정을 꾸려야 했고, 그는 형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번다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이에 스스로 만드는 법을 배우는 식으로, 자체 조달하는 삶에 익숙했다고.

그가 예술 학교를 나와 작가로서 처음 전시를 하게 됐을 때도 이런 '메이커' 면모가 빛을 발했던 일화도 있다. 당시 그의 동판화 시리즈를 보고는 베를린의 한 갤러리가 전시 제안을 했는데, 클링에는 카펫 대신 마룻바닥이 깔린 전시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만 했다. 도록을 프린팅하는 일이나 작품을 포장·운반하는 일 등은 스스로 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전시일이 다가와 그가 차에 작품을 싣고 그곳에 갔을 때 목재 바닥은 준비돼 있지 않았다. 결국 그는 솜씨를 발휘해 직접 공사를 했고, 원하는 방식으로 성공리에 데뷔를 했다.



6



7



8



9

클링에를 예술 세계에 바짝 다가가게 한 인물은 뉘른베르크 출신의 판화가이자 조각가,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였다. 수백 년 앞서 살다간 인물이지만, 르네상스 미술 등을 연구하면서 이르기로도 큰 자취를 남긴 뒤러의 자취에 클링에는 큰 감명을 받았다. "현재를 이해하려면 과거도 알아야 합니다. 아티스트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해냈고 뿌듯해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미 예전에 있었던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건 그저 속이 빈 또 다른 껍데기일 수 있어요." 그의 소속 갤러리 대표이자 친구인 보테 갤러리의 클라우스 보테는 클링에의 창조 철학에 대해 대상을 응시하고(seeing), 내적 깊이를 꿰뚫고자 성찰하고(reflecting),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뭔가를 더하면서(adding), 탈바꿈시키는(transforming) 수순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뭘 새롭게 더하려는 걸까? "대상을 관찰할 때 제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요." 순간, 이는 만큼 보인다는 평범한 진리가 뇌리를 스쳤다. 마침 다양한 인간 군상이 한데 모여 있는 듯한 클링에의 작업장 한편에 놓여 있는, 아직은 형체가 불분명한 커다란 나무 상태의 작업을 가리키면서 그에게 물었다. "그럼, 저기에선 뭐가 보였나요?" 그러자 그는 진지한 어조로, 그러나 살짝 장난스레 답했다. "여인이죠. 아니, 그게 안 보였던 말인가요?" 그리고 보니 그건 그의 뮤즈외도 같은 다프네(Daphne,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강의 신 페네이오스의 딸로, 자신을 사랑하는 아폴로에게서 도망치다가 월계수로 모습을 바꾼다') 시리즈를 닮았다. 합부로 가능하기 힘든 애뜻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클링에의 다프네를 미완성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여정은 흥남했다. 글 **고성연**

K-아트에 빠진 파리지앵

해외 미술 컬렉터들 사이에서 한국 현대미술이 재조명받는다는 소식은 이제 놀라운 뉴스는 아니다. 심지어 한때 베이브릭 수집에 열을 올렸던 몽블랑 코리아 지사장 에릭 에더(Eric Eder)처럼 우연히 한국 미술에 매료된 걸 계기로 진정성 있는 아트 컬렉터로 거듭나는 경우도 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단한 '큰손'이 아닌 개인 컬렉터들이 한국 미술을 바라보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낯선 이를 가장 먼저 맞이한 건 여백이 많은 이우환 작가의 작품과 그 너머에 걸려 있는 김창열 작가의 물방울 시리즈다. 국내외에서 내로라하는 한국 대표 작가의 작품 두 점을 마주하고 나니, 이 집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다. 올해 몽블랑 코리아의 지사장으로 취임한 에릭 에더(Eric Eder)는 자칭해서 서울에 왔다. 6~7년 전에 한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의 전무로 근무하며 서울에 머문 적이 있는 그는 한국 문화에 익숙하다. 나중에 한국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K-컬처에 깊이 빠지기도 했지만, 사실 아트에 대한 기호는 '국적과는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우연히 한국 아티스트들을 좋아하게 되면서 미술 전반에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국 미술을 계기로 베이브릭에서 아트 컬렉터로

어릴 때부터 마블 같은 카툰을 좋아했던 그는 베이브릭을 열심히 모았다. 2003년 일본에서 일하던 시절 마블을 모티브로 한 베이브릭을 처음 보고 구입했다. 베이브릭이 워낙 꾸준히 새 상품을 내놓는지라 그도 그 사이클에 맞추다 보니 어느덧 '베이브릭 컬렉터'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아마도 2백 개 넘게 갖고 있었을 거예요. 사이즈가 큰 건 10개 정도고요. 일본에서 살았을 때도 그렇지만 싱가포르, 홍콩으로 출장을 가거나 유럽에 머물 때도 사들였던 터라 항상 짐 가방에 베이브릭이 들어 있었죠. 인터넷으로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들이 태어난 뒤 그는 베이브릭에 예전처럼 관심을 두지 않게 됐다. 3~4년 전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베이브릭을 마지막으로 수집을 중단하기로 결심하고는, 의미 있는 몇 개만 남겨두고 전부 옥션에 내놓았다. 상품 구색이 너무 다양한 데다 신제품이 빠르게 쏟아지다 보니 도저히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도 했다. 그는 한창 베이브릭을 수집하던 당시에는 무라카미 다카시와 나라 요시모토 같은 일본 작가도 좋아했다며 아들 레오의 장난감 상자를 가리켰다. 상자 안에는 무라카미 다카시 쿠션부터 나라 요시모토 인형이 가득했다. 그가 미술 작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시기는 배병우 작가의 사진 작품을 구입한 2008년 무렵이었다. 당시 한국에서 근무하던 그는 틈날 때마다 미술관과 갤러리를 방문했는데, 그러던 중 리움 미술관에서 배 작가의 사진을 처음 접하게 됐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소나무'로 유명한 배 작가의 작품 중에서 그가 구입한 건 '절벽' 사진이었다. 나중에 그가 작가를 직접 만났을 때 알게 됐는데, 사실 사진 속 절벽의 배경은 작가의 그리움 고향인 여수였다. 서울 한남동 집 2층 계단 벽에 걸어 놓은 배병우 작가의 사진은 그가 처음으로 구입한 한국 작가의 작품이자 작가의 고향 사진이었던 것. 그의 집에는 배병우 작품 외에도 사진 콜라주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원성원 작가, 현대사회에서 소비되는 여성을 표현하는 김인숙 작가, 2014년에 리움미술관에서 전시한 바 있는 일본 작가 히로시 스기모토 등 사진 작품이 몇 점 더 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에릭 에더의 K-아트 컬렉션

흥미로운 점은 그의 K-아트 컬렉션 대부분이 외국에서 처음 접하고 구입한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그가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살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웬지 작품들과의 인연이 그리 가벼워 보이지는 않았다. 원성원 작가 사진은 사진 예술 축제인 파리 포토에서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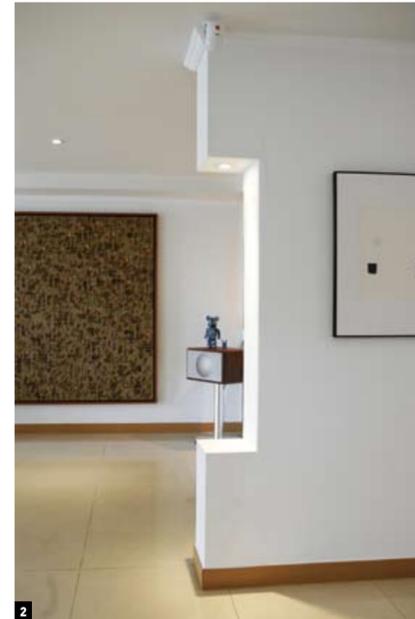


1

이우환 작가의 작품은 도쿄를 여행하다가 어느 갤러리에서 구입했다. 거실에 건 커다란 김창열 작가 작품은 한국을 떠나 파리에 있을 때 어느 갤러리에서 보고서는 웬지 한국과 연결돼 있는 느낌이 들어 샀다고 한다. 김창열 작품은 두 점 더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중에서 자신의 생년월일에 발행된 신문에 물방울을 그려 넣은 그림들인데, 갤러리 오너가 갖고 있던 기존 작품을 보고 작가에게 제작을 의뢰해 구입했다. 이우환과 김창열 두 작가가 프랑스 죄드폼 국립 미술관(Galerie Nationale du Jeu de Paume)에서 초대전을 열었던 유일한 한국 작가라는 걸 보면 두 작가의 작품이 특히 프랑스 사람들에게 남다른 거 다가 가는 게 아닐까 싶다. "서울에 살기 전 한국은 남·북한 같은 분단 이미지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K-팝, K-드라마, K-푸드, K-아트 등 한국에도 강력한 고유문화가 있었어요. 최근 들어 세계의 인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세계 유명 컬렉터들이 한국 미술을 수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조지 벨스의 소파, 장 푸르베 조명등, 정원에 놓은 찰스 & 레이 일스 라운지 체어 등 디자이너 가구도 눈에 띄는데, 파리에서 사용하던 해묵은 것들이라고 한다. 크기는 작지만 이 집에서 가장 고가인 앤터니 고펠리(Antony Gormley)의 조각도 거실 한 자리를 차지한다. 카툰에서 망가와 팝아트, 조각, 서정적인 한국 현대미술까지, 작품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아도 관심 분야가 꽤 다양한 편이다. 아직 자신의 취향을 완전히 민지 않는다는 그는 갤러리스트 출신인 아내 윤정미 씨의 조언에 귀 기울인다. 하지만 투자가 목적이 아닌지라 결국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작품을 택하는 편이다. 자신의 소신을 믿고 스포츠팀을 넓혀갈 에릭 에더의 한국 미술 컬렉션에 더욱 기대를 품게 된다. 글 **김민서**

1 서울 한남동 집 거실에 걸린 김창열 작가의 작품 앞에 선 에릭 에더. 2 한관에서 보이는 김창열 작가의 이우환 작가의 작품. 3 에릭 에더의 컬렉션 중 최고가인 앤터니 고펠리의 조각 작품과 그가 제일 처음 구입했다는 베이브릭. 4 김창열 작가 에릭의 생년월일에 발행된 르몽드 신문에 작가의 물방울을 그려 넣은 작품.



2



3



4

쿠바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전통 회화의 수호자

Carlos Garcia de la Nuez



46 미술사에서 라틴아메리카 또는 중남미는 크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시장을 장악하는 힘도 크지 않고, 일부러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남미 작가라면 대중적으로 알려진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가 거의 전부인 현실인데, 하물며 한국과는 수교조차 맺지 않은 쿠바는 어떻겠는가. 쿠바는 체 게바라 외에도 헤밍웨이나 부에나 비스타 소설 클럽 같은 문화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나라지만, 정작 이 나라 미술에 관한 정보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행히 2015년에 미국과 쿠바의 국교가 54년 만에 정상화되면서 쿠바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 2015년 12월에 열린 아트 바젤 마이애미에는 쿠바의 대표 작가 그룹 로스 카르핀테로스(Los Carpinteros)를 비롯해 여류 작가 카르멘 헤레라(Carmen Herrera)와 아나 멘디에타(Ana Mendieta) 등 쿠바 작가 15명의 작품이 마이애미 비치를 장식했다. 또 쿠바의 수도에서 열리는 아바나 비엔날레에는 미국 작가 35명을 포함해 44개국 2백여 명이 이르는 작가가 참여했다. 이러한 현상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쿠바 미술이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아시아에 첫 행보를 내딛은 쿠바의 추상화가

홍콩의 갤러리 신신 파인 아트(Sin Sin Fine Art)에서 지난 11월 11일까지 쿠바 작가 카를로스 가르시아 드 라 누에즈(Carlos Garcia de la Nuez)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 열렸다. 갤러리 신신만(Sin Sin Man)이 이 쿠바 중견 작가를 알게 된 것도 작년에 열린 아바나 비엔날레 덕이다. 신신만의 지인이 아바나를 여행하던 중에 비엔날레에서 카를로스의 그림을 우연히 발견했고, 사진을 찍어 그녀에게 보내줬다. 아나나 다를까 단번에 카를로스의 그림에 마음을 빼앗긴 신신만은 곧바로 그의 SNS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카를로스의 아시아 데뷔전이 성사됐다. 전시가 시작되기 하루 전, 갤러리에서 넉넉한 풍채와 인자한 인상의 카를로스를 만났다. 라틴아메리칸 특유의 유쾌함으로 이

방인을 맞아준 그는 예술가의 까칠함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수더분한 쿠바 아저씨였다. 쿠바 혁명이 일어난 1959년, 아바나에서 태어난 카를로스는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 환경 속에서 자란 순박한 소년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게 아니라서 자신이 작가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 단지 그의 모친은 카를로스가 남과 조금 다른 '이상한(wierd)' 아이였다고만 기억한다. 고등학교 때 수업으로 세계 미술 역사를 배우고 드로잉을 그려본 게 전부였던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아마도 '시 때문이었으리라. "10대 중반에 누가 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시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제 작품도 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란 영향도 컸죠. 대지의 변화, 바다의 움직임 같은 걸 바라보며 지냈어요." 캔버스를 꽉 채운 노란빛과 길게 이어지는 수직 수평선은 그가 아바나에서 보고 느낀 풍경에서 비롯한다. 카를로스는 예술 학교로는 중남미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산 알레한드로 아카데미(San Alejandro Academy)에 입학해 처음 미술을 접했고, 쿠바의 명문 대학인 국립예술학교(Instituto Superior de Arte)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예술은 정치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신념

그는 젊은 시절부터 쿠바 미술사에서 흐름을 역행하며 남다른 커리어를 쌓은 인물이다. 대학에 다니던 1982년, 동료 작가 구스타보 아코스타(Gustavo Acosta), 호세 프랑코(José Franco), 모이세스 피날레(Moisés Finalé)와 함께 <4X4>라는 첫 그룹전을 열었다. 당시 쿠바 예술계는 전위적이고 정치적인 색을 띠는 사회적 사실주의(social realism) 경향이 짙었는데, 그의 생각은 달랐다. "예술이란 그 누구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쿠바 혁명 이후 정치 상황이 급변해 당시 쿠바의 예술 교육도 매우 엄격하고 불인했어. 우리는 오히려 그런 환경에 냉담해지고 개인적인 부분이 더 집중하려 했죠. '회화는 죽었다고 여겨지던 시대, 쿠바에도 아방가르드 미술이 한창 붐을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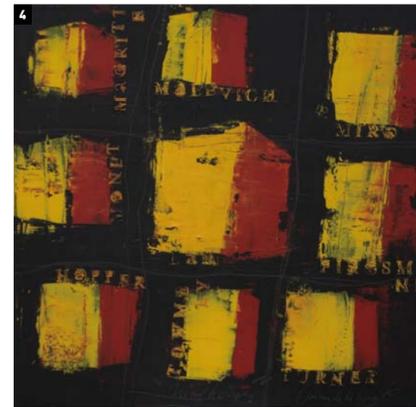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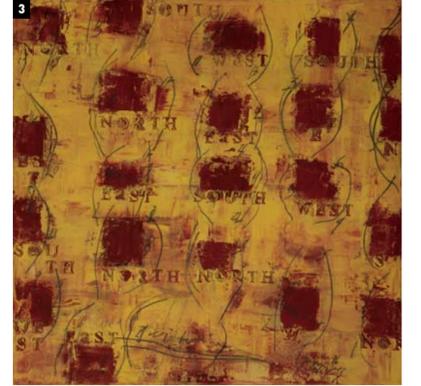
었지만, 그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전통 회화를 고집한 것도 비슷한 이유였어요." 그룹전을 함께 준비했던 다른 동료 작가들이 어떻게 하면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는지가 아니라 예술을 지적 작업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노력한 데는 카를로스가 매우 중요한 자극을 줬다. 그는 유쾌한 성격이지만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했다. 이후 카를로스는 <4X4> 전시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외 여러 그룹전에 초대됐다. 모국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는 유학이 허용되지 않던 당시, 쿠바 사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비자를 받아 미국 매사추세츠 예술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미국에서 보낸 시간은 마치 동전의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치·사회·예술적 현실이 그전에 알고 있는 바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예술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것이 꼭 미국이라서가 아니라 지금껏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삶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은, 충격 같은 것이다. 매사추세츠 예술대학에서 시각예술로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이후 거주지를 파리로 옮겨 더 큰 세계로 나아갔다. 그의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노랑과 빨강과 검은 색감, 그리고 울룩불룩 캔버스 위로 올라온 알파벳과 숫자다. 표현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그는 회화라는 매체가 보여줄 수 있는 색감과 질감, 텍스트, 캔버스의 크기, 그리고 제목까지 모두 중요하게 여긴다. "세계는 하나하나가 개념입니다. 풀 고갱이 말했어요. '1m의 녹색은 1cm의 녹색보다 더 초록빛이다'라고요. 자신보다 키가 큰 그림에 둘러싸였을 때와 가로로 길쭉한 그림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색감, 질감, 크기 등 모두 각자 다른 스토리를 담고 있고, 그것을 조합했을 때 전달하는 바도 달라지죠." 항상 그림을 그리기 전 제목을 결정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는 그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하는 순간

디자인, 건축, 음악, 시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카를로스, 현재 그의 스튜디오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멕시코시티에 자리 잡고 있다. 그는 현대미술의 최전선에 있는 도시들을 옮겨 다니며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작품 철학은 이미 아바나에서 살던 시절에 확립된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래서 예술적 감수성의 뿌리인 고향을 여전히 가까이 두고 살며, 가족이 그리울 때는 언제든지 아바나로 향한다. "멕시코는 가족이 있는 쿠바와 가까워서 좋아요. 또 매우 강렬하고 인상적인 대중문화를 발전시켰고, 오랜 역사만큼 잠재력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멕시코만큼 거대한 시각적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유럽을 떠난 뒤 1992년 멕시코 시티에서 보낸 시간은 그의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카를로스의 작품에서 색감이 더욱 풍부해진 시기가 대략 그가 멕시코시티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무렵부터다. 57세에 처음 아시아를 방문했다는 카를로스에게는 "지금도 또 다른 변화의 시점이 될 듯하다. 이번 개인전이 끝나면 내년 3월에 열리는 아트 센트럴(Art Central)에 참여하기 위해 또 한 번 홍콩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미 개인전 오프닝에서 그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는 컬렉터를 여럿 보았기에 아시아 예술 시장의 중심인 홍콩에서 보여줄 그의 행보를 주목해볼 만하다. 훗날 쿠바의 미술사를 되돌아봤을 때 그는 어떤 예술가로 기록될지 내심 궁금해진다 이이다. 글 김민서

Nuez

이름도 단번에 기억하기 어려운 카를로스 가르시아 드 라 누에즈(Carlos Garcia de la Nuez). 그는 쿠바 혁명의 해에 태어나 격변의 시대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고집으로 전통 회화를 지킨, 쿠바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중견 작가다. 아시아 첫 개인전을 앞두고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카를로스를 홍콩에서 만났다.



1 작업실에서 작품을 손보고 있는 카를로스.
2 DOS(2016), 캔버스에 혼합 재료, 110X250cm.
3 21 windows(2016), 캔버스에 혼합 재료, 110X110cm.
4 9 houses(2016), 캔버스에 혼합 재료, 110X110cm.
5 4 houses of Fire, 캔버스에 혼합 재료, 150X120cm.



자연을 벗삼은 예술, 마르파를 가다

사뭇 황량한 풍경이 펼쳐져 있는 미국 텍사스 주에는 한때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던 작은 마을이 하나 있다. 미니멀 아트의 거장으로 20세기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도널드 저드가 화려했던 뉴욕 생활을 과감히 접고 이주해 여생을 보냈던 마르파(Marfa)라는 곳이다. 감성이 아니라 이성을 내세우지만 묘한 비례미의 감동을 자아내는 저드의 걸작들이 대자연과 묘하게, 그리고 어쩌면 가장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이 외딴 마을을 한 아트 애호가가가 직접 가봤다.

미국 텍사스 주의 극서부 멕시코 지역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 치후아후안 사막 한쪽에 위치한 마르파(Marfa). 2천 명이 채 안 되는 주민들(그나마 그중 일부는 휴가철에만 이곳의 별장을 찾는다)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다. 개인 소유의 전용 비행기가 아닌 일반 항공사 운항편을 이용해 도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인 엘 파소(El Paso) 또는 미들랜드(Midland) 공항에서 각각 자동차로 3시간 이상 떨어진 이곳으로 향하는 여정은 어지간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휴대폰은 수신 신호를 잃기 일쑤인 데다가 1950년대 영화 <사이언트>를 촬영하던 당시 머물렀던 주연 배우의 이름을 딴 제임스 던 룸과 엘리자베스 테일러 스위트룸이 인상적인 호텔 파이사노(Hotel Paisano) 외에는 마땅히 숙박할 만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주변 지인

들에게 이런저런 감언이설로 함께 가지 않겠냐고 운을 띄봐도 별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꽤 크다. 그도 그럴 것이 <사이언트>라면 그야말로 허허벌판을 개척해나가는 영화가 아닌 단가. 하지만 현대미술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생각을 달리 할지도 모르겠다. 마르파는 미니멀 아트(정작 작가 자신은 이런 식의 명명은 좋아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의 대가로 손꼽히는 도널드 저드(Donald Judd, 1928~1994)가 자신과 동료들의 작품을 영구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재건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광활한 대지를 품은 불모의 땅에 예술을 심다

미술관이라는 형태적, 본질적 벽에 부딪혀 한계를 느끼고 들쭉대던 뉴욕 미술 시장에서 벗어나고자 저드는 1971년 광활한 대지를 품은 마르파를 처음 방문했고, 그 뒤로 틈이 날 때마다 방문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걸출한 이론가이기도 했던 그는 회화의 한계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회화와 조각을 넘나드는 3차원 입방체의 '오브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아가 "사물에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외에 어떤 의미도 없다"라면서 기교를 뺀 기하학적인 형태의 작품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했다. 합판, 알루미늄, 래커 칠을 한 이연 도금, 플렉시글라스 등 공업용 재료를 사용해 기계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선 저드의 작품들. 지극히 이성적으로 배열된 이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그건 저드의 작품에 담긴 비례미에 이미 빠졌다는 방증일 것이다.

1981년 아예 마르파로 이주한 그는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뉴욕과 이곳을 오가며 불모의 땅을 비로소 자신의 작품에 딱 어울리는 하나의 전시장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예술 공동체로 일궈내며 평생의 숙원을 이뤘다. 마르파의 황량한 들만에 놓인 저드의 절제미 돋보이는 작품들은 지평선 너머 펼쳐지는 사막, 바람에 흩날리며 춤을 추는 듯한 들판,

그리고 저녁 무렵이면 노을로 물드는 고요한 하늘과 은근히 잘 어우러진다. 이곳을 찾은 관람객이 이런 장관을 바라보며 무어지경에 빠진 순간, 비로소 작품이 완성되는 게 아닐까 싶다. 마르파 곳곳에 저드 재단(Judd Foundation)의 건물이 흩어져 있다. 그 건물들 안에서는 합판, 알루미늄 등 그가 종종 사용하던 재료를 다양한 색상, 길이, 비율로 버무려 나열한 저드의 스튜디오, 그가 직접 디자인한 극도로 미니멀한 책상, 의자, 침대, 테이블 등 가구, 그리고 그가 생전에 수집한 다른 아티스트들의 컬렉션도 만나볼 수 있다. 마르파가 지금처럼 아트 타운으로 거듭나게 된 데는 뉴욕 시 그랜드 센트럴 역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에 현대 미술 거장의 작품을 대거 영구 전시해 미술 애호가들을 사로잡은 디아 비콘(Dia Beacon) 미술관의 지원이 한몫을 토포했다. 허드슨 강변 북쪽으로 달리는 기차 창 너머 풍광을 즐기며 가는 여정마저도 유쾌한 디아 비콘. 옛 제과 회사의 공장 건물을 개조해 층고가 높고 탁 트인 이 파격적인 공간에 저드 외에도 같은 미니멀리즘 아티스트로 분류되는 덴 플라빈(Dan Flavin), 솔 르윗(Sol Lewitt) 등은 물론, 마이클 하이저(Michael Heizer),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의 실험적인 대형 작품이 들어서 있다. 저드는 1979년 디아 재단(Dia Foundation)과 협업해 과거 미군 부대 주둔지로 사용되던 마르파의 한 건물을 사들여 별다른 외형의 변화를 주지 않은 채 미술관으로 개조했다. 바로 1986년 마르파에 문을 연 치나티(Chinati) 재단이다.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움, 형용을 넘어선 감동

치나티 재단의 야외 전시 공간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받은 인상은 뉴욕 인근의 디아 비콘을 처음 방문했을 때 느낀 충

격의 몇 갑절이었다. 도서관 사서가 협소한 서랍장에 꼼꼼히 분류해놓은 듯한 전시도, 성전 같은 과다한 건축에 빛바랜 작품도 이곳에는 없었다. 그가 생전에 늘 안타깝게 여겼던 예술과 건축의 격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창 안으로 스며드는 자연 채광은 저드 특유의 차가우면서도 장식적인 비례미와 절제된 변주가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며, 건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무엇보다도 1.6km에 이르는, 야외에 설치된 입방체 형태의 오브제 설치 작품이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지평선 너머 드리우는 구름의 아득한 그림자가 펼쳐내는 변주와 묘하게 어우러진 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모습은 절로 말문이 막히게 만든다. 자연을 벗삼은 예술을 앞에 두고, 적절한 사막 한가운데를 달리며 이머 나면 오지로 가는 여정에서 이미 커질 대로 커져버린 상상속 경이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한국에 파견돼 군 복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저드가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한 여백의 미를 살린 한국의 전통 조경에서 다소 영감을 받지 않았다. 하는 생각도 스쳤다.

아무리 감동이 깊다 해도 그저 작품 감상에만 마르파 여행을 끝내서는 아쉬울 것 같다. 치나티 재단에서 미술관 못지않게 흥미진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이 재단은 칼 안드레(Carl Andre), 덴 플라빈, 존 챔버렐린(John Chamberlain), 로니 혼(Roni Horn), 리처드 롱(Richard Long) 등 1960~1970년대 저드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주요 작가들의 작품 역시 함께 전시하고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또 현시대의 유망 작가들을 위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물론 심포지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일반 방문객에게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이 방대한 전시장에서 스스로 깨닫고 인식의 범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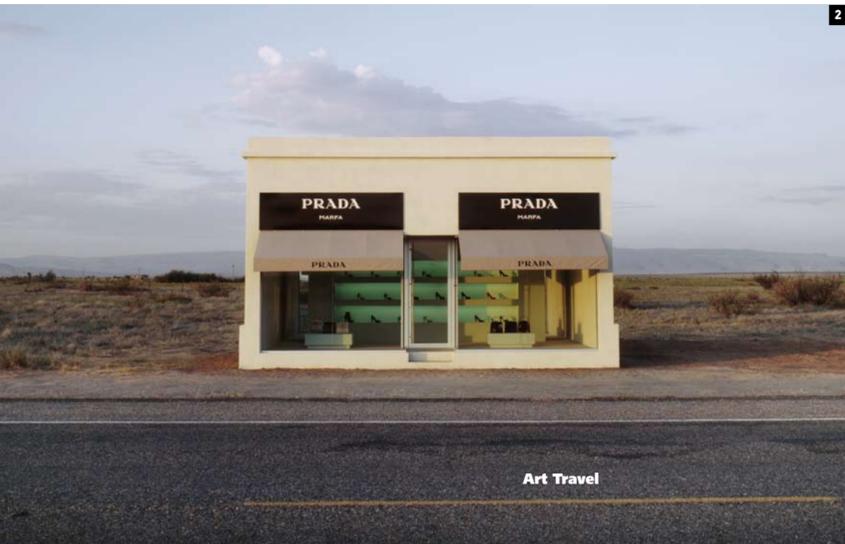
를 넓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결코 과하지 않은 도슨트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저드 재단의 풍부한 아카이브, 치나티 재단의 전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접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수다. 또 아티스트가 작업하던 건물과 스튜디오를 비롯해 마르파의 명소를 방문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자칫 먼 길을 와놓고도 방문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푼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공식 홈페이지 www.juddfoundation.org, www.chinati.org 참조). 땀가 끼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르파로 향하는 마나면 여정이 못내 망설여진다면 괜찮은 대안이 하나 생겼다. 15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복구 작업을 마친 저드 재단의 뉴욕 소호 전시 공간도 2013년 6월 디더 일빈에 공개됐으니 이곳을 먼저 방문한 뒤에 마르파행을 결정해도 좋을 듯하다.

설치미술의 또 다른 백미, 사막 속 '명품 매장'

어떤 이유에서든 마침내 마르파를 찾았다면 농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명소가 있다. 90년 국도(U.S. Route 90)에 위치한 마르파 프라다(Marfa Prada)가 그것이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밸런타인(Valentine)이라는 작은 마을의 서쪽 경계를 벗어나 자리 잡은 이 설치물은 베를린을 주 무대로 활동하며, 지난해 서울 플라토 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으로 우리에게도 친숙해진 미샤엘 엘름그린과 잉가르 드라그세트(Michael Elmgreen & Ingar Dragset) 듀오가 소비 지상주의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틀어 담아낸 설치 작품이다. 지난 2005년 10월, 명품 브랜드 프라다의 2005년 F/W 컬렉션 제품을 '전시'해 설치 작품으로 첫선을 보인 이래 많은 이들이 다녀갔지만, 도난 방지를 이유로 그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바닥이 없는 개방 6개와 오른쪽만 남은 슈즈 20켤레가 가지런히 정렬된 전시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별레의 천국이 돼가고 있다. 명품을 진열하는 장소로 뉴욕이나 파리 도심이 아니라 황량한 사막을 선택해 탈맥락화 과정을 보여준 이 작품은 저드와 닮은꼴이라 흥미롭다. 동시대 미술을 관통하며, 비판적 성찰을 워트 있게 풀어온 이 2인조 아티스트 역시 저드와 마찬가지로 장소적 특수성의 이점을 살려 탈맥락화 과정을 엿볼 수 있도록 한 예술 작품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다.

이 작품은 공공 미술을 선보이는 뉴욕 소재의 비영리단체 아트 프로덕션 펀드(Art Production Fund)와 볼룸 마르파(Ballroom Marfa)가 함께 기획해 10여 년 전에 선보이면서 마르파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거듭났다. 하지만 플레이보이 잡지사에서 직접 기획해 인근에 설치한 리처드 필립스 작품이 '허기받지 않은 광고 아니냐는 이유로 교통당국의 저지를 받으면서 당달아 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듀오의 설치물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마르파 프라다 살리기(Save Marfa Prada) 운동이 일어난 데다, 2013년 11월 플레이보이 소유의 작품이 반년도 채 남지 못하고 갤러스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옮겨지면서 극적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숨 가쁘게 살아가는 도시인들이 저 멀리 마르파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결단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느껴보고 싶다면, 그리고 우연히라도 텍사스 근처에 간다면 저드의 영혼이 살아 숨 쉬는, 마을 자체로 '대지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꼭 들러보기를 권하고 싶다. 글 황다나

1 텍사스 마르파의 광활한 들판을 배경 삼아 들어선 치나티 재단. 2 엘름그린과 드라그세트 듀오의 설치작 '마르파 프라다'. 사진 James Evans, 사진 제공 Galerie Perrotin. 3 화이트 큐브를 탐미한 '라만사나 드 차티/더 볼룸 공간'내, 빛이 내리쬐는 모습인 인상적인 사무스웨스트 스튜디오. 4 저드 스튜디오의 모습. 5 저드의 초창기(1956~1958) 유희를 만끽할 수 있는 코브 하우스(Cobb House). 6 라만사나 드 차티/더 볼룸 공간의 나바로 룸(Navajo Room). 3, 4, 5, 6 사진 Elizabeth Felicella/Esto - Judd Foundation Archives, Donald Judd Art © 2016 Judd Foundation / SACK, Seoul.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혁명을 회고하다

프랑스 건축과 도시계획에 큰 혁명을 선사한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 그는 공동주택의 개념을 실현한 주인공으로, 아파트를 통해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인체 비율을 고려한 공간 기준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였다. 그런 점에서 최근 그의 17개 건축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프랭크 게리, 인도 다다오 등 많은 건축 거장이 현대인의 삶을 실용적으로 바꿔준 세기의 혁신가 르 코르뷔지에에게 진정한 존경을 표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1

“풍상 성당에 갈 때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스페인의 발마오 구겐하임 뮤지엄으로 스타아키텍트(starchitect)의 대명사가 된 프랭크 게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파리 남부에 있는 조소적인 느낌의 예배당인 룡상(The Chapelle of Notre-Dame-du-Haut, Ronchamp)을 비롯해 위대한 건축물이 프랑스 도처에 남아 있기에 많은 이들이 프랑스인으로 알기도 하는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는 사실 스위스 출신이다. 스위스 라 쇼드퐁에서 태어난 그는 1920년에 건축가로서의 자신에 걸맞은 이름을 스스로 짓기 전까지 샤를-에두아르 잔느레로 불렸다. 피아노 교사인 어머니에게 예술적 자질을 물려받아 어릴 때부터 섬세한 감성을 지닌 소년이었다던 샤를-에두아르 잔느레는 아버지와 함께 숲과 계곡을 탐구하며 성장했다.

위대한 근대 건축가의 스승은 자연이었다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하나는 프랑스 건축가 오귀

스트 페레(Auguste Perret)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르 아브르에 1만2천 개의 주택과 공공 건물, 상가, 종교적 건축물, 정부 청사 등을 지어 도시를 탈바꿈시킨 건축가였다. 철근 콘크리트가 르 코르뷔지에의 상징적인 건축 재료가 된 것은 1907년 오귀스트 페레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그 실용성을 깨달으면서부터였다고. 이후 르 코르뷔지에는 페터 베렌스(Peter Behrens)의 건축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루트비히 미스 반데어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와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와 교류했다. 이 모든 만남은 당시 유럽에 막 자리 잡은 새로운 문학, 과학, 음악, 디자인, 장식 예술 등 문화 혁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축가가 되는 발판이 됐다. 하지만 건축학을 정식으로 수학하지 않은 그의 진정한 스승은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을 여행하며 태생을 통해 건축의 구성과 논리를 해독했다. 쥐라 산맥의 바람을 맞으며 자연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부여한 것은 자신의 고향에는 존재하지 않는 뜨거운 태양이었다. 이렇게 여행은 그에게 새로운 건축의 축을 이루는 기본 요소뿐만 아니라 화려한 색에 대한 향연을 맛보게 해줬다. 그가 언제나 손에서 놓지 않았던 태생 작업은 성실하게 현실을 자각하는 방식이었으며, 회화와 건축 작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멸의 약기였다.

인체 비율을 건축물에 활용한 해안과 진취성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체의 비례 규칙을 신전 건축에 적용한 로마 시대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Vitruvius)에게 영감을 받아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의 인체 비례도를 탄생시켰다. 르 코르뷔지에는 인간의 신체 척도와 비율을 기초로 황금 분할을 찾아냈고, 그것을 건축적으로 수치화한 것이 '모듈러(le modular) 이론'이다. 모듈러는 최소한의 공간 속에서 사람이 움직이기에 불편함이 없는 최적화된 수치와 표준을 제시한다. 르 코르뷔지에 자신이 인생의 걸작이라고 선언했던 약 13.22m²(4평, 3.66X3.66cm)의 작은 통나무집 카바농(1951년)은 이 수치를 건축가 스스로의 삶에 녹인 흥미로운 모델이다. 카바농은 비행기를 타고 니스에 내려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로크브렌-카프-마르탱

(Roquebrune-Cap-Martin)에 위치한다. 차에서 내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모나코가 보이는 지중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그는 모나코가 고향인 아내 이본에게 이 작은 통나무집을 선물했는데, 부부의 별장이었음에도 나무로 만든 침대는 하나뿐이었다. 아내가 침대에서 자고, 건축가는 바닥에 매트리스만 깔고 잠을 잤다. 모듈러는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물 대부분에 적용된다. 거주민 3백 명 이상을 한 건물에 수용하면서 학교, 상가, 스포츠 센터, 공연장 등을 갖춰 건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한 마르세유의 유니테 다비타시옹(Unité d'Habitation, 1945~1952), 자연 속에 세운 오브제로 형태와 재료의 관계를 연구한 룡상 성당(1950~1955) 역시 모듈러 이론을 표적으로 삼았다. 누워서 두 팔을 벌리면 양쪽 벽이 손에 닿는 라투레트 수도원(1953~1960)의 작은 방은 큰 도시의 호화롭고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삶을 다시 숙고하게 한다. 2013년 뉴욕 현대미술관과 2015년 파리 폼피두 센터에서 르 코르뷔지에의 전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건 기능적 공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다.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르 코르뷔지에 전시 역시 건축과 도시계획의 중요성, 집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얼마 전 스위스에서 르 코르뷔지에의 또 다른 명작 '찬디가르(Chandigarh)' 전문가인 건축가 레이 파피오 교수를 만났다. 그는 올해 17개의 건물이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핵심 건물이 찬디가르 입에도 찬디가르 프로젝트 건축 기획이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품고 있었다. “찬디가르를 만들 때 르 코르뷔지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도의 기후와 문화였어요.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 40℃의 열기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단지 바람과 그늘만으로 서늘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파리16구에 위치한 르 코르뷔지에 아파트(1931~1934)의 이젤을 보며 그가 남긴 말을 상기해본다. “건축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우주의 법칙으로 세운 기하학으로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글 박은주(아트 컨설턴트)

1 르 코르뷔지에의 현대인을 위한 효율적 건축을 추구한 기둥이다. Portrait of Le Corbusier, années 50 © Fondation Le Corbusier, 2016. 2 찬디가르는 르 코르뷔지에와 영국의 건축가 제인 드류와 막스웰 프리이, 그리고 피에르 잔느레, 인도의 건축가들이 공동 작업으로 완성한 도시다. Chandigarh, 1952. Photo by Rémi Papillaut, AARP Archi-teccte du Patrimoine. 3 룡상 성당은 기념비적인 종교 건축물 중 하나다. Chapelle Notre-Dame-du-Haut, Ronchamp, 1950~1955(Photographer : Paul Kozłowski). © Fondation Le Corbusier, 2016. 4 푸아사예 위치한 빌라 사보이는 옥상 정원, 자유로운 평면 수평상, 자유로운 입면, 필로티 등 근대 건축의 요소를 적용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Villa Savoye, Poissy, 1928(Photographer : Paul Kozłowski). © Fondation Le Corbusier, 2016.



Column



SHOWROOM



BEAU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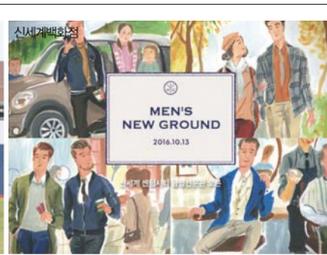


멜비타 오가닉 골드 홀리데이 컬렉션 멜비타는 진취한 5가지 오일의 영양 성분을 담은 오가닉 골드 홀리데이 컬렉션을 출시한다. 다가오는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출시한 이번 컬렉션은 청정 지역에서 발간한 5가지 오일을 블렌딩해 제조한 것으로, 고급스러운 벨벳 원단을 연상시키는 텍스처가 특징이다.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며, 심쾌한 이탈리아인 베르가모트와 달콤한 우황과 잎의 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오가닉 골드 오일, 오가닉 골드 샤워, 그리고 오가닉 골드 보디 밀크로 구성되어. 문의 02-544-2505



로얄살루트 로얄 브리티시 데이 로얄살루트는 영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로얄 브리티시 데이'를 성공리에 마쳤다. 9월 23일과 24일 제주 구좌읍에 위치한 한국 폴로 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 최대 폴로 경기인 2016 로얄살루트 폴로컵 경기가 펼쳐졌으며, 전 잉글랜드 폴로 팀 주장이자 로얄 살루트 폴로 홍보대사 맬컴 보콕이 참가해 경기 수준을 높였다. 또 영국의 피크닉 문화를 소개한 브리티시 피크닉, 제13대 아가일 공작이 호스트로 주관한 로얄 만찬 등 영국 문화의 정수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문의 02-3466-5700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센텀시티 남성관 리뉴얼 오픈 신세계백화점은 동시대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제



시는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 남성관을 단순한 쇼핑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독창적인 소재와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이세이 미야에 맨즈 스토어가 백화점 최초로 입점했으며, 남성, 여성, 그리고 키즈 라인으로 구성된 골든스루 북학 매장, 브리오니, 날 바렛, 디스퀘어드 2 등 모든 연령대의 남성을 위한 브랜드 구성을 높였다. 또 가넷, 뷰티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는 라이프스타일 숍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쇼핑이 가능하다. 문의 1588-1234

에이스침대 에이스 헤리츠 블랙 에이스침대는 궁극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매트리스 '에이스 헤리츠 블랙'을 선보인다. 에이스침대의 데이터



를 바탕으로 꾸준한 연구 끝에 탄생한 에이스 헤리츠 블랙은 100% 마리아 울 원단, 천연 인모, 밀털, 오가닉 코튼 등 쾌적한 환경을 선사하는 천연 소재를 사용했다. 이에 더해 3D 스페이서, 마리를 폼 등 불용감과 뛰어난 통기성을 자랑하는 첨단 신소재를 더해 최상의 숙면을 취하도록 돕는다. 문의 1670-0117

루즈 비발디 루즈는 비발디에게 헌정하는 의미를 담은 오로골 비발디를 출시한다. 비발디 사후 2백75주년을 기념해 선보이는 이 오로골은 최고급 약크림에 스웨덴 에보니 마카르티 원목을 제재했다. 브랜드의 스위스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17개의 실린더로 3개의 멜로디를 감상할 수 있다. 오직 1백개 한정 판매한다. 문의 02-516-0016

LIVING FASHION

JEWEL & WATCH



사벨 화인 주얼리 브라이덜 컬렉션 사벨 화인 주얼리는 브랜드 최초로 선보이는 브라이덜 컬렉션을 제공한다. 마드루아젤 사벨이 가장 사랑한 꽃자사벨 화인 주얼리의 시그니처인 카멜리아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주얼리를 만날 수 있으며, 이를 비롯해 우아한 매력의 마들라베, 프리미에르 컬렉션을 함께 구성했다.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아름답게 수놓아줄 브라이덜 컬렉션 주얼리는 갤러리아백화점 이스트에 자리한 사벨 워치 & 화인 주얼리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42-0362

펜디 타임피스 셀러리아 컬렉션 펜디는 캐주얼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여성 워치 '셀러리아 컬렉션'을 출시한다. 자개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장식이 화려한 이 컬렉션은 다양한 컬러의 스트랩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하나의 페이스에 원하는 스트랩으로 교체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스타일링에 포인트를 더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투톤 컬러, 레드, 옐로, 그레이 등의 컬러 스트랩을 선보인다. 문의 02-3284-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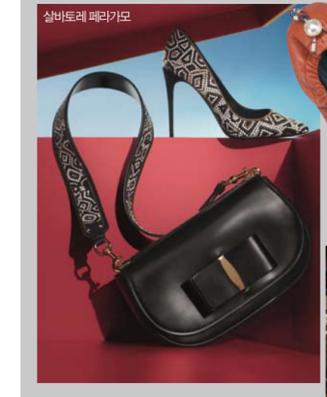
카르띠에 뉴욕 맨션 리뉴얼 오픈 카르띠에는 레노베이션 작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카르띠에 뉴욕 맨션을 새롭게 선보였다. 1917년부터 뉴욕 5번가에서 자리를 지켜온 이 맨션은 브랜드의 역사를 대변하는 의미 있는 장소로, 맨션 오픈 1백 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테리어와 공간 재구성 과정을 거쳐 재탄생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보다 넓어진 공간을 자랑하며, 전문 상담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프라이빗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뉴욕 맨션 오픈 행사에는 클로이 모레츠, 케이티 홀스, 올리비아 팔레르모, 소피아 코플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러브리티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의 1566-7277

에르메스 케이프 코드 에르메스는 출시 25주년을 맞은 남성용 시계 '케이프 코드'를 새롭게 선보인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조화가 돋보이는 시계로, 1998년 미팅 마르자텔리가 선보인 더블 투어 스트랩 모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며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타임피스로 자리매김했다. 새로운 2016 케이프 코드 컬렉션은 새로운 보석 세팅 테크닉, 화려한 컬러, 소재, 다이얼 등의 변화를 준 다채로운 모델로 채웠으며, 국내에서는 오닉스와 라피스 라зу리 스트 다이얼 변종을 소개한다. 문의 02-3015-3283

버버리 여성용 캐시미어 트랜치 버버리는 겨울을 맞아 소재감이 좋은 캐시미어 트랜치를 출시한다. 이탈리아산 캐시미어를 사용해 감촉이 부드러운 것은 물론, 뛰어난 보온성까지 갖췄다. 줄어지는 허리가 실루엣을 살려주는 헤리티지 라인의 샌드링과 캔칭된 핏 캐시미어 트랜치코트, 랩 스타일의 캐시미어 트랜치코트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해 선택의 폭이 넓다. 전곡 버버리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burberry.com)에서 구입 가능하다. 문의 080-700-8800

레드 바이티 펄 포인트 엘라스티크 탐 라인 플랫폼 슈즈 레드 바이티는 진주 장식 다이얼이 우아한 매력을 지니는 펄 포인트 엘라스티크 탐 라인 플랫폼 슈즈를 선보인다. 브라운 컬러로 출시하는 이 신발은 천연 양가죽을 사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앞코에 대한 자연스러운 캐더 다이얼과 뒷부분의 진주 장식 시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해준다. 다이얼로 활용하기 쉬운 색이 없는 펄 포인트 엘라스티크 탐 라인을 랫 슈즈는 전곡 레드 바이티 백화점 매장과 한성 온라인 쇼핑몰(www.thehandsome.com)에서 판매한다. 문의 02-3449-5977

몽클레르 서울 플래그십 오픈 이벤트 몽클레르는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의 오픈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해 성공리에 마쳤다. 쇼핑의 메카인 청담동에 자리한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는 오랫동안 몽클레르와 전 협업을 진행한 프랑스 출신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기 & 부이찌에게 매장 인테리어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몽클레르, 몽클레르 그레노블, 몽클레르 앙팡 등 메인 라인을 포함해 오프 화이트의 협업으로 탄생시킨 캡슐 컬렉션 '몽클레르 오프뷰티도 만능'을 선보였다. 문의 02-514-0900

살바토레 페라기오 크리스마스 액세서리 컬렉션 살바토레 페라기오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따금로운 패션 액세서리를 제공한다. 여성을 위한 제품으로는 그래픽 패턴 블랙 & 화이트 마이크로 스타드 미니멀 슈즈, 콤팩트 바라 리본이 달린 바라 럭스 백 등 화려한 스타일을 연출해주는 패션 아이템, 남성을 위한 제품으로는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로 퍼, 가죽 벨트 등 우아한 멋이 느껴지는 아이템으로 구성된다. 12월부터 서울 일부 페라기오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0-7854

스위로브스키 글램 락 스마트폰 케이스 스위로브스키는 크리스탈이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 글램 락 스마트폰 케이스를 출시한다. 케이스 전면에 빼곡히 장식한 스위로브스키 크리스탈이 강렬한 룩시크 무드를 자아내는 아이본 전용 스마트폰 케이스로, 다이얼 룩에 특별한 포인트를 더해주는 것은 물론, 다가오는 연말,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도 제격이다. 블랙 & 그레이 컬러로 출시하며, 전곡 스위로브스키 매장에서 구입 가능하다. 문의 1661-9060



몽클레르